

2022 인권단체협력사업

‘들리지 않는 외침’

광주 시민 10인 구술 기록 사업



프롤로그 . 005

- 장애 -

가족이 있기에 . 007

편견 없는 세상을 기다리며 . 019

- 탈가정 -

가출밖에 답이 없었다 . 033

지금, 가장 기대되는 순간 . 045

- 이주 -

내 인생은 이제 시작 . 061

엄마가 행복했으면 . 077

- 성 정체성 -

어릴 때부터 누나 옷이 그렇게 좋았다 . 089

첫사랑 그리고 커밍아웃 . 105

- 노동 -

해군 소령에서 배달 라이더로 . 119

콜센터 상담사의 고충 . 135

프롤로그

2021년 연말에 ‘광주인권지기 활짝’으로부터 상임활동가로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받은 후, 어떤 인권 운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됐다. 광주인권지기 활짝의 회원으로, 교육활동가로 인권 교육은 함께 해오던 중이었지만 인권단체에서의 역할과 주요한 활동 분야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 일단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겁 없이 인터뷰 사업을 계획했다. 광주광역시 인권단체협력사업으로 열 분을 인터뷰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직접 찾아가서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래 알고 지내 온 학교 밖 청소년과 불안정 노동자,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연대활동을 통해 알게 된 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이주민 지원단체로부터 섭외를 부탁하여 구술자 10명을 선정했다.

탈시설 후에 엄마가 되었고 현재는 작가로 활동하는 뇌병변 장애인, 아이의 성장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성인 발달장애인의 어머니, 열여덟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혼자 아들을 키우고 올해 아들과 함께 대학에 들어가는 결혼이주 여성, 탈북민 엄마의 행복을 바라는 중도입국 자녀, 쉼터에서 후기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생이 된 청년, 살기 위해 십 대에 가출하고 이십 대 후반에 온전히 자립한 여성, 해군 소령에서 자영업을 거쳐 배달라이더로 전업한 삼십대 가장,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비정규직 노동운동가로 변신한 워킹맘, 당신이 성소수자라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성소수자 활동가, 노조 정관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만들자고 주장한 성소수자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듣게 된 삶의 이야기는 목격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불과 몇 번의 인터뷰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나만의 엄청난 착각이었음을 깨달았다. 이들에게 물었기에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그 누구도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하는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각각의 삶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줬다. 그렇게 생애사를 듣고 난 후에야 이토록 생생한 삶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면 어쩌나 싶어서 무서워졌다. 그 책임의 무게를 몰랐던 모자람이 일을 시작하게 했지만 뒤늦게 책임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심리적으로는 퇴근하지 못한 것 같다. 그 무게를 나누어 짊어지고 작업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특별히 강은하, 김수삼, 안근영, 장수영님께 감사드린다. 이들의 조언과 도움이 없었다면 열 분의 구술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일만 벌이는 나로 인해 고생이 많은 활짝의 동료 활동가 도연, 인경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하고 싶은 인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짝에 후원해주시는 회원들에게도 감사하다.

광주에서 함께 살아가는 열 분의 이야기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속 활동이 과제로 남는다. 다행히 작게나마 연대는 시작되었다. 인터뷰를 통해 구술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셔서 내 삶의 경계도 확장되었다. 묵직하고 치열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열 분의 구술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덕분에 인권활동가로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광주인권지기 활짝
상임활동가 박은영

가족이 있기에

고열로 얻게 된 장애

시설에 들어가다

집으로 돌아오다

독립과 결혼

가족이 있기에



고열로 얻게 된 장애

3kg의 신생아로 건강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100일이 되기 전, 고열로 인해 뇌병변장애가 생겼다. 열이 40도가 넘었고 황달 증상이 있었다. 그런데 병원에 너무 늦게 갔다. 빨리 갔으면 괜찮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엄마는 그때를 얘기하셨다. 엄마는 할머니 때문에 병원에 바로 못 갔다고 했다. 그 당시에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언니도 황달을 심하게 앓았었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냥 뒤도 알아서 낫기에 나도 그러리라 생각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치료할 때를 놓치고 말았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엄마는 가슴을 쳤다. 장애가 없이 태어났지만 너무 어려서 장애를 얻었고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이 평생을 휠체어 생활을 했다. 내가 두 살 때부터 엄마는 담양 우리 집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을 데리고 다니며 치료받게 하셨다.

80년대 무렵 한국 최초로 지체부자유 특수 유치원이 생겼다. 다니던 병원 의사 선생님에게서 곧 광주에도 지체부자유 특수 유치원이 생긴다고 그곳을 다니라는 말을 들었다. 내가 다섯 살 때 엄마는 광주로 이사했다. 광주에서 나에게 맞는 특수 유치원을 다니게 했다. 통학버스를 타고 특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해 초중고 모두 특수학교에 다녔다. 특수 유치원과 초중고를 같은 곳에서 이어 다니다 보니 친구들과도 친했고 학교 시설도 익숙하고 만족스러웠다.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택시를 타고 도시락을 싸 들고 여행도 다녔다.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서 여행을 종종 갔지만 여행지에서의 좋은 기억은 별로 없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보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저 우리끼리 즐겁게 놀고 있었

을 뿐인데 그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학교 다닐 때 나는 굉장히 활발했고 공부도 잘했다. 그렇지만 일반 학교에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는 것도 잘 몰랐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제일 못 본 성적도 중위권 정도였다. 다니던 학교에서 대학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취소되었다. 우리 학교에 대학도 생겼다면 아마 그곳에서 대학 진학도 하지 않았을까 싶다. 함께 공부하고 즐겁게 놀고 많은 시간을, 십수년을 함께 한 나와 친구들의 고등학교 졸업식은 눈물바다였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 졸업 후 어떤 친구는 집으로, 어떤 친구는 직업학교로, 어떤 친구는 시설로 갔다. 나는 그 당시만 해도 대학에 합격해서 당연히 대학에 갈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고3이 되어 수능을 봤고 서울지역 대학교에 합격할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그때가 1997년이었고 때마침 IMF가 들이닥쳤다.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대학 진학은 포기해야 했다. 게다가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서서 집안 곳곳에 빨간딱지가 붙었다. 집에 난리가 났고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로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것뿐이었다.

시설에 들어가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갔다. 지역 광고지인 사랑방 신문의 장애인 입소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 화순에 있는 시설이었고 좋은 시설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내가 골라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많지 않았고 그래도 갈 곳이 있어 다행이다 싶었고 처음엔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 친절이 진심이라고 느낄 만큼 잘해줬지만 해가 갈수록 본색이 드러

나기 시작했다. 돈이 문제였던 것 같다. 우리를 시설 안에 거의 가둬 놓다시피 해서 나갈 수가 없었다. 시설을 운영하면 돈이 된다는 걸 아니까 장애인들을 가둬 놓고 이용하는 것이 보였고, 5년이 지나니 시설 건물을 크게 증축하는 공사를 했다. 갇혀 살다가 건강이 나빠지고 내가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니 그들은 나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한 덕에 시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다.

시설에서의 오 년 동안은 아무 불만 없이 살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나를 물건 취급하듯 대했고 뭔가 잘못 돌아간다고 느꼈을 때는 너무 늦은 뒤였다. 내가 반항하자 처음에는 때리기도 했고 독방 같은 곳에 혼자 1년을 갇혀 살기도 했다. 시설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시설 안에서 삼 년 동안 투쟁했다. 몇 년 뒤에 다시 그 시설에 갔을 때 그 독방은 흔적조차 없었다. 그 독방이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이후 나는 폐쇄공포증이 생겼다. 어둡고 좁은 곳에 있으면 가슴을 조여드는 두려움에 나도 모르게 숨을 못 쉰다. 나의 트라우마는 치유되지 않았는데 그 시설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시설을 나와 동료 상담을 하면서 처음 이런 말을 얘기했을 때 동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본디 나는 밝은 사람이다. 나의 밝은 이면에 그런 사건을 겪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시설에 있는 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나의 기억들을 지우기 위한 작업이었다. 지금의 나의 기억은 많이 비어 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다. 특히 병원에 있는 동안 몸이 안 좋아서 약을 계속 먹었는데 그 약은 독하고 중독성이 있어서 끊을 수가 없었다. 그 약을 안 먹으면 몸이 굳는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좋아지지도 않았다. 그 약을 먹으면 그렇게 즐기고 우울했다. 그러면서도 몸은 계속 경직되

고 있었다. 입원해 있는 동안 그 시간은 나에게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었다.

시설에 나와서도 나는 약 중독 때문에 병원에 다녔다. 그리고 9년 만에 마주한 세상은 별천지가 되어 있었다. 시설 안에서만 살다가 밖으로 나와 바라본 세상은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서 집 밖으로 1년 동안 나가지를 못했다. 너는 이제 나가서 살 수 없다고 시설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은 탓이었을까? 시설에서는 뉴스도 보여 주지 않았고 그동안 나는 시설 밖 세상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보니 새로운 대기에서 숨 쉬듯 이전과는 다른 환경이었다.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없었다.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장애인을 보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그래도 처음에는 내가 나가서 살 수 있을까 겁도 났고 엄마가 데리러 오기 전까지는 시설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다

1998년에 시설에 들어가 9년 살았고, 나와서는 1년 동안 집에만 있다가 집 밖에 나가니 그냥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그리고 2009년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누가 알려줘서 신청하게 되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 나는 휴대폰도 사용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센터 프로그램으로 체험홈에서 3일 자립 생활 경험을 했다. 세 명이 함께 체험홈에 살고 있었고 다들 잘 지내고 있었다. 짧은 2박 3일의 경험이었지만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내가 사회에서나 일상

생활도 모두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있었다.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더 자유로워졌다. 혼자 나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것이 좋아 자주 혼자 다녔다. 아마도 그간 나는 이런 자유가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았다. 전동 휠체어는 학교 다닐 때 탔다가 시설 생활 그리고 집에 있는 동안, 약 10년 안 타다가 다시 탔다. 그런데 달라진 세상에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도 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발이 되어 주었다.

여러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8년 동안 직장인으로 일도 했고 국장까지 승진하기도 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주제로 인권 강의도 했었다. 인권 강사 자격증도 땀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로 학교로 수업을 나갔는데,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나가면 초등학생들이 공손히 인사를 한다. 굳이 내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지 않아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 내가 몸담았던 복지기관을 퇴사했고 글쓰기 공모전에 응모를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글을 쓰는 것인 것 같다. 글을 쓰고 싶다. 내가 쓴 글을 읽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싶다. ‘이런 삶과 이런 슬픔이 있구나’를 이렇게 글을 통해 전하고 내 글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

독립하고 지금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만 독립에 대해 처음 엄마에게 말했을 때 엄마는 크게 반대하셨다. 이 몸으로 어떻게 나가냐며 1년 만이라도 더 집에 있으라고 했다. 나는 그 1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혼자 가끔 밖에 나가기도 했다. 동네 호떡집에 가서 호떡을 사는데 호떡집 아줌마는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내가 돈을 내니 돈을 받고 ‘몇 개나 줄까?’라고 물으셔서 ‘5개 주세요’라고 말했다. 특별한 시선도 특별한 불편함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다. 5천 원 주고 호떡 5개를 사서 집에 와서 엄마에게 내가 이렇게 호떡도 혼자 살 수 있다고 말을 했다. 엄마가 그 순간 충격을 받으셨다. 내가 혼자 나가서 호떡을 사 왔다고 하니 그 자체로 놀라신 것이다. 어떻게 네게 혼자 샀냐며 몇 번을 물었다. 그랬던 엄마가 다음에는 내가 나갈 때 심부름도 시키셨다. 그래도 독립을 허락받기가 쉽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서 내가 뛰쳐나왔다. 집을 나와서 바로 체험홈으로 갔다. 그리고 다시 엄마를 설득했다. 엄마는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뒤로 자유롭게 살았다. 그리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살았다. 사실 직장 생활을 선택한 것이 온전한 나의 의지는 아니었다. 아빠가 아프시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 나에게 가족과 같이 사는 게 어떠냐고 하셨다.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아빠가 같이 살자고 하시는데 단 몇 개월만이라도 부모와 같이 사는 게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미 자유를 경험한 그때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힘들었다. 그래서 당장 급하지도 않고 의욕도 크지 않았는데 직장을 잡았다. 집 밖으로 나갈 이유가 필요했다. 다행히 같이 일하자는 사람들은 많았다. 복지기관이나 협회 등 이런저런 곳에서 12년을 일했다. 좀 쉬고 싶었는데 아는 언니가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더 하게 되기도 했다.

나에게 가족은 때로는 고맙지만 때로는 힘든 존재들이다. 내 잘못과는 무관하게 장애를 얻고, 가족의 상황이 원하지 않는 시설행을 선택하게 했다. 내 결정이고 내 가족을 위해서지만 가족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은 없다. 모든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내 인생은 증발한 것 같았다. 그런데 때때로 가족은 나를 원망하고 있었다. 가족이 날 원망할 때나 내가 내 가족을 못 믿게 됐을 때, 그 배신감

은 엄청났다. 그리고 그 배신감은 지워지지 않는다. 내가 시설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이 나를 짐으로 여긴다고 느낄 때가 있었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건 어디로 가버리고 가족에게 나는 짐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온 것 같다. 그 순간에는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가족들과 살고 싶지 않았다.

독립과 결혼

학창 시절에 나는 학교에서 연애도 많이 했다. 다른 친구에 비해 학교 여기저기를 자주 돌아다녀 유명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각각의 사정으로 서울로 부산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지금도 연락하며 지낸다. 그렇게 재밌게 살다가 시설에 들어가니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체험홈에 있으면서 만난 오빠와 공개 연애를 했다. 이상하게 오빠와 있으면 편안함, 아늑함을 느꼈다. 그 사람 집에 가면 내 집보다 더 편안했다. 그러다 어느 날 체험홈 코디에게 사귀는 오빠 집에서 자고 와도 되냐고 물었다. 자고 와도 된다고 했다. 연애 중에 오빠가 먼저 같이 살자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동거를 하게 됐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다.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 무서웠다. 나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아이는 못 가질 줄 알았고 그래서 피임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한 것이다.

임신하고 처음으로 엄마에게 출산에 대해 말했을 때 엄마는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낳아

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심장 소리가 들리는 살아있는 아이였다. 아이를 지을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태아에게 안 좋다고 해서 늘 먹던 약도 끊었고 다행히 약을 끊어도 큰 이상은 없었다. 아기가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자기도 살려고 이러나 싶었다. 어떻게 키우느냐가 문제였다. 오빠와 나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더해도 월 440시간밖에 안 되어 아이를 돌보기엔 역부족이었다. 갓난아이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 내 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몸이니 일단은 임시 영아일시보호소에 1년 동안 맡겼다가 데려올 계획이었다. 그런데 영아일시보호소에서 이상한 말을 했다. 입양을 보내실 거냐고 바로 물었다. 영아일시보호소에서는 입양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나는 아니라고 1년만 맡긴다고 말했었다. 영아일시보호소에 아이를 맡기고 자주 갔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갔다. 그래도 1년 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늘어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드디어 영아일시보호소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다.

가족이 있기에

아이를 매일 보니 너무 좋았다. 하지만 1년을 임시보호소에 맡겨서 처음 1년은 엄마라는 인식이 별로 없는 듯했다. 아이와 정 붙이려고 많이 노력했다. 엄마가 매일 우리 집으로 출퇴근하며 육아를 도와주셨기에 가능했다. 엄마를 생각하면 참 미안하다. 우리는 운이 참 좋다. 엄마와 활동지원사 도움으로 함께 키우고 아이는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 크고 있으니 참 감사할 따름이다. 그런 미안함과 그리고 고마운 마음, 또 쉬어야 하는 나이에 손주 키우며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잔한 마음도 있었다. 집에서 어린이집이 가까웠고 그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도 좋으신 분이였다. 아침에 추우면 내가 못 나가니 엄마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 아이가 4살이 되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고 그곳을 다니면서 태권도도 배우기 시작했다. 어린 아이는 수시로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나와 활동지원사가 데리고 가면 보호자가 장애인이란 사실에 의사는 놀라곤 했다. 아이의 아픈 증상에 대해 내가 직접 이야기하고 입원도 시키고 하지만 저녁이나 밤에는 엄마에게 또 부탁해야 했다. 아플 때조차 내가 늘 옆에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아이에게 내가 ‘엄마야 엄마야’라고 늘 말했다. 그리고선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불렀다.

아이가 좀 더 크고 차차 가르쳐야 할 것들이 생겨나면서 처음엔 유튜브를 많이 이용했다. 그러다 유튜브에 중독될 것 같아 안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끊었다. 중독되지 않게 하려고 TV도 틀고 말을 수시로 걸었다. 그래도 다행히 아들은 5살에 한글을 떴고 6살에 책을 읽기 시작했다. 7살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나도 아이 아빠도 책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이 방에는 책이 많다. 나는 어렸을 때도 지금도 책을 많이 읽는다. 특히 반전이 있는 추리 소설을 좋아한다. ‘셜록’도 다 읽었고 애거사 크리스티 소설도 읽고 있다. 책은 편견 없이 나를 대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상을 만나게 해 준다. 그런 소통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이를 교육하는 데에서도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했다.

나는 지금 동화도 쓰고 시도 쓴다. 동화를 쓰기 시작한 지는 2

년이 되어 가고 내 개인 시집도 냈다. 집에서 틈틈이 글쓰기를 하며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한다. 아들을 공부시키면서 나도 글쓰기 공부를 계속한다.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강의 신청을 해서 문학 강의와 글쓰기 강의를 듣고 있다. 작가 동호회 모임도 줌으로 참여하고 있다. 느긋하게 아이도 보고 남편도 보고 틈틈이 글도 쓰고 강의도 듣고 있다. 지금 아들도 사춘기지만 자신을 잘 찾아가길 바라고 앞으로 잘 크길 바랄 뿐이다. 지난 시간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과 아들, 우리 가족 덕분이다.

근래엔 남편과 나의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활동지원사가 퇴근하면 화장실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도움을 받을 길이 없을 때는 저녁에 물도 잘 안 마신다. 처음부터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는데 나이가 들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도 이제는 한 해, 한 해, 커 가는 우리 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의지가 된다. 몸의 불편함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잘 클 것이다. 더없이 잘 자라고 있다. 우리도 가끔 싸우며 나는 아직도 우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일상이 좋고 가족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잘 보낼 수 있다.

편견없는 세상을 기다리며

아들만 귀하게 대하던 집의 딸로 태어나다

내 딸은 발달장애인

아이의 학교생활

아이를 위해, 아이 덕에

가정불화

내 딸은 독립할 수 있을까

발달장애인 가족으로 산다는 것

편견 없는 세상을 기다리며



아들만 귀하게 대하던 집의 딸로 태어났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다. 안동시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산골에서 딸 다섯, 아들 둘인 집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여 면소재지에서 자취를 했다. 중학교 때부터 거의 독립적으로 내가 밥을 해 먹으며 학교를 다녔다. 우리집이 돈이 없는 집은 아니었는데 딸은 공부를 안시켜도 된다는 아버지 뜻으로 고등학교 학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싶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다니며 그렇게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우리집은 농사를 많이 지어서 주말에는 집에 와서 농사일을 많이 거들었다. 하지만 가을걷이가 끝나면 아버지는 항상 그 돈으로 놀음을 하시거나 밖에 나가 다 써버리고 오셨다. 이런 일로 엄마하고 다툼도 많았다. 그래서 빨리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여동생은 매일 책만 보고 공부하며 농사일을 안 돕는다고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고 미움을 샀다. 반면에 아버지는 아들들은 정말 예뻐했다. 우리집이 있던 마을은 산골이라 논 같은 게 없었다. 그래서 콩보리밥을 주로 먹었는데 남동생에게는 콩보리밥에다가 쌀밥을 가운데 넣어서 줬다. 자식이라도 그렇게 차별을 하셨다. 시골에서 고추 따고 콩밥 매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자라서 그런지 중년이 되어도 나는 전원생활 로망이 없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고생은 많이 했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고 내가 좀 운이 좋았는지 무역회사에 바로 취업했다. 대구에서 무역 관련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서울 본사에 나랑 동갑내기 여직원이 본인 지인이라고 소개시켜 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으로 소개로 만나서 결혼을 했다. 소개받은 시기에 나는 직장 다녔고 그

사람은 마산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상병 때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편지가 왔다. 그 이후로 몇 번 답장을 써줬다. 그 당시에는 결혼까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연애 3년 정도 하고 내 나이 26살, 애 아빠는 27살 되던 해에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한다고 하니 친정 아버지가 반대하셨다. 전라도 사람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반대 이유는 본인이 군대 갔을 때 전라도 선임한테 당한 일이 있어서 전라도로 시집가면 내가 힘들거라고 하셨다. 나는 결혼을 하고도 거의 25년 광주에 계속 살고 있다.

내 딸은 발달장애인

결혼을 98년 1월에 했고 11월에 예쁜 딸을 낳았다. 임신하고 아이가 뱃속에서는 잘 컸는데 막달이 되니 거의 안 커서 병원을 다녔다. 자연분만 하려고 생각했는데 뜻대로 안됐고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 아기를 낳았을 때 2.7kg이었다. 이 조그만한 아기는 잘 먹지도 않고 먹으면 토해서 입원하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이가 좀 약하다고만 생각하고 키웠는데 발달 과정이 또래보다 많이 늦었다. 뒤집기도 늦었고 아이가 19개월 만에 겨우 걸었다. 육아는 기다림과 속이 타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아기가 말도 늦어서 계속 걱정했다. 아이가 다섯 살 때, 동네 소아과에 데리고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이가 나중에 말을 하더라도 학습장애 같은 게 올 수 있다고 하셨다. 의사선생님은 전대 옆 소아정신과 병원이 있다고 거기를 한번 가보라고 하셨고 바로 가서 검사를 받았다. 하시는 말씀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발달이 늦지만 일 년 정도만 이렇게 치료 받으면 좋아진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치료 받으러 병원에 다녔다. 그

때는 운전 못해서 버스 타고 다니며 딸 아이랑 한 살 아래 아들까지 업고 다녔다.

그런데 1년 가까이 치료받으러 다녔는데 별로 차도가 없어서 터미널 옆 병원으로 다시 옮겨 다녔다. 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 발달장애라고 했다. 절망적이었다. 아이 아빠도 많이 힘들어 했다.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남편만 보고 멀리 타지로 결혼해서 온 나는 의지할 데도 없는데 아이 아빠는 자기도 너무 괴로우니까 늘 술을 끼고 살았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든 좋아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로 딸 아이의 치료에 매진했다. 하지만 진전은 없고 그러다가 지치고 우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나쁜 생각을 많이 했다.

어느 날 아이 아빠가 술을 먹고 귀가했는데 내가 독하게 말했다. 아들은 그래도 멀쩡하니까 아빠가 키우고 나는 딸과 함께 죽고 싶다고. 험박이 아니라 당시 내 진심이었다.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신랑이 정신을 차리고 본인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었는지 육아를 많이 도왔다. 치료실 갈 때도 시간이 되면 데려다주고 우리 가족은 그렇게 병원을 계속 열심히 다녔다. 그렇게 수 년을 치료 받아도 우리 아이에게는 발전이 별로 없었다. 그때 아마 대학생 학비 정도는 썼을 것이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아이의 교육을 포기할 수 없었던 나는 유치원도 좋은 곳에 보내고 싶어서 남들이 진짜 좋다는 곳으로 찾아 보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어린이집에 보내서 맞춤형으로 보육했으면 차라리 더 나았을 지도 모른다. 그 당시 내 생각에는 딸이 커서 사회에 나가면 비장애인들과 살아가야 하니까 그것만 걱정하느라 장애 아동만 있는 특수교육 어린이집에 보내기 싫었다. 그래서 발달장애 딸을 고등학교까지 모두 일반학교로 보냈다.

아이의 학교생활

여덟 살에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생활에 적응이 힘들까 걱정돼서 1년 유예해서 아홉 살에 학교를 보냈다. 딸 아이 혼자 못 다니니까 등하교를 내가 같이했고 학교 끝나면 또 치료실에 갔다. 딸의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담임선생님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달려있었다. 선생님을 잘 만나면 아이의 일 년이 편안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과 갈등으로 나도 딸 아이도 많이 힘들었다. 애가 돌아다닌다고 복채로 애 머리를 막 때렸다고 반 아이들에게 들었다. 그런 담임선생님의 모습은 학급 분위기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어느 날은 우리 딸 아이를 눕혀놓고 어떤 애는 배 위에 올라타 있고, 어떤 애는 얼굴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 애는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걸 봤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역장이 무너진다. 학교생활을 하며 아이가 당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면 내가 못 살겠다 싶을 때도 있다. 아이가 말을 안 해서 나는 모르니 짐작만 할 뿐이다. 실제로 내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도 그 가해자 엄마가 와서 자기 애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했다. 그때 당시에 왜 나조차 가만히 있었는지 후회되고 화가 난다. 빨리 조치를 취해서 아이가 편하게 학교에 다니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 아이가 부족하니까 항상 굽히는 자세로 학교에 쫓아다녔다. 내가 담임선생님과 학급 아이들에게 잘 했어도 선생님이 함부로 아이를 대하니까 애들도 그렇게 함부로 했고 학교에서 평평 울었는데도 아이가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했다.

차라리 중학교 때는 도움반 선생님이 정말 잘 도와주셔서 학교

에 잘 다녔던 것 같다. 일찍이 특수학교를 보냈으면 딸 아이가 더 편했을 텐데 다 나만의 욕심이었나 싶어 아이에게 미안하다. 고등학교 당시에는 보현이가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도움반 선생님들도 본인들이 좀 힘드니 본 반에 애를 많이 보내니까 아무것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3년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다. 지금도 그 고등학교 옆을 지나가면 그쪽은 아이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부모로서 많이 후회된다.

아이를 위해, 아이 덕에

병원에서 아이 치료비는 보통 40분 수업하는데 4만원 정도였다. 아이의 장애를 알게 된 5살 이후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까 열심히 치료실에 데리고 다녔다. 아이가 치료와 교육 내용들을 수용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했다. 나 외에도 다른 엄마들도 모두 그런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교육을 받게 한다. 또는 서울에 무슨 한의원 한약을 먹어서 아이가 좋아졌다고 들으면 서울 가서 한약도 지어온다. 나 같은 경우는 딸 아이가 너무 약하고 밥을 안먹어서 한약을 좀 많이 먹였다. 치료비에 한약값에 남편 월급 절반은 들었다. 그래도 천만 다행으로 주변에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좋은 언니들이 있었고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다. 아이들이 끈이 돼서 우리는 친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다. 이 동네에서 20년 계속 살면서 치료실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지인과 친해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아이 덕분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 장애인 체육회에 대해 누가 알려줘서 아이와 수영도 다니고 스케이트도 타러 다니고 다양한 활동을 했다.

다른 엄마들과 아이들 데리고 함께 여행을 간다거나 같이 밥을 먹는다고나 그러면 애들이 서로 말은 안 해도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게 느껴졌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이 어릴 때 여행을 많이 데리고 다녔고 캠핑용품 사서 이곳저곳 캠핑도 몇 년 동안 열심히 다녔다. 그러면 아이가 즐거워하니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내가 혼자 데리고 나가면 심심해하니까 주변에 지인들 불러서 다니기도 했다. 여행 갈 때 캠핑용품 챙기고 다녀와서 정리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 딸이 좋아해서 열심히 다녔다.

가정불화

친한 언니가 아무리 딸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도 이제 좀 컸으니까 아들에게도 남편한테도 신경을 쓰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하지만 정말 내 눈에는 거의 딸만 보였다. 그러다보니 아들한테도 후회될 일이 생겨났다.

아들도 어렸고 사랑을 진짜 많이 받으며 자라야 될 나이에 나는 딸에게 매여 있었다. 딸의 치료에만 신경쓰느라 동생인 아들이 늘 방치되고 있었다. 애기 아빠도 직장 나가야 하니까 둘째는 놀이방에 맡기고 딸 아이 치료실에 다녔다. 동생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서 그런지 나중에 좀 힘들었다. 엄마는 왜 어렸을 때 나는 내버려두고 그렇게 누나한테만 신경썼냐고 말을 할 정도였다. 내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때는 누나 교육이 우선이라고만 생각했다고 많이 사과했다. 그렇게 둘째가 사춘기 때 힘들어해서 심리치료를 받게 했다. 그 아들이 벌써 다 커서 지금은 군대에 있다. 지금은 아들하고는 끈끈한 사이로 거듭났다.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막 울어서 너 왜 우냐

그랬더니만 엄마가 불쌍하고 걱정돼서 울었다고 한다.

나에게 섭섭해하던 아들과 이런 사이가 되기까지 실은 남편과의 갈등이 심했던 부분이 기여를 했다. 아이들 사춘기를 시점으로 해서 7년 정도 인생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남편 하나 보고 타지로 결혼해서 딸 하나 치료해서 제대로 키워보려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남편과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사이가 안좋아졌다. 하지만 이혼도 결정할 수 없었다. 제일 먼저 딸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미루고 그 시간이 길어지니 너무 힘들고 그러다 정신과 약을 먹게 됐다. 좀 나아지면 끊었다가 너무 힘들면 또 먹기를 반복해서 버틴 시간들이었다. 이제는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 내가 그래도 잘 견뎌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전업으로 딸을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너무 원했지만 이혼 결정을 못하고 말았다. 남편과 문제가 생기면서 불교를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며 살아간다.

장애인 부모회에서 공예 수업을 열면 거기 가서 공예를 한다. 하다 보면 몇 시간이 금방 가버린다. 그런 활동도 하고 아기 키우면서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자격증도 따면서 힘든 시간을 버텼다. 아마 딸이 없었으면 나쁜 생각도 했을 것 같다. 근데 장애가 있는 딸을 놔두고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하겠나,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하면 남은 자식들이 얼마나 그 상처로 힘들까 싶어서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내 딸은 독립할 수 있을까

아이가 어려서는 교육이라는 게 시기가 있는 것 같아서 집중했

는데 성인이 되어도 발달장애인 자녀들은 거의 평생교육을 시켜야 한다. 정규교육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전공과 졸업하고도 집에 있는 애들이 많다. 더러는 우울증이 심해져서 집 밖으로 안 나오는 애들도 있고, 일자리 갔다가 부적응으로 다시 집에 와서 아예 집에만 있는 애들도 있다. 딸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아침 10시에 가서 오후 4시까지는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 활동지원제도가 있어서 평일에 네 시간 이용하고 일요일 날 한 번씩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도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내가 훨씬 더 편해졌다. 그러면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도 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계속 딸과 함께 살아왔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계속 고민이 든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돌봄이 필요할 때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고 혼자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고. 혼자 아니면 세네명이 함께 사는 그룹홈 이런 데서도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딸 아이가 신변처리도 잘 안되고 아직도 혼자 나가는 것도 안 되고 소리에 되게 좀 민감해서 밖에 나가도 차 소리도 공포로 느낀다.

그래서 만약에 자립을 시킨다고 과연 될까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름 집에서 자립할 수 있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모이면 차라리 지체장애를 부러워한다. 머리만 멀쩡해도 자기가 직접 못 움직여도 지시하거나 필요하면 말할 수도 있고 불만이 있으면 건의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애들은 그게 안 되니 도저히 불안해서 혼자 어디 보낼 수가 없다. 딸 아이는 집 안에 있으면 심심해 한다. 그래서 되도록 데리고 나간다. 나가지 않을 때에는 거의 태블릿 PC로 뭘 보기만 한다. 딸은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끼리 나가는 것보다 누군가 가족외의

사람들과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한다.

사실 딸의 독립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무섭다. 우리 식구들은 모두 딸에게 호의적이고 다 잘해주고 있다. 아빠도 아들도 딸에게 잘 하는데 특히 내가 딸을 놓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더군다나 여자아이라서 더 걱정이 많다. 내가 딸보다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기에 최대한 오래 옆에서 많이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으로 산다는 것

얼마 전 뉴스에서 말기암을 앓던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한 엄마가 나왔다. 자기가 죽으면 이 아픈 딸을 보살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셨을 것이다. 코로나 시기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자녀 살해 뉴스가 많이 보도됐다. 나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오죽하면 그럴까 싶은 마음에 이해가 된다. 하지만 부모가 너무 힘들면 사회에 잠깐 맡겨두는 것도 그분들의 고민 중 선택지 하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 부모 모임에서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줬다. 내 그릇이 되니까 이 아이가 나한테 온 거고, 내 자식으로 왔으니까 내가 키울 수 있는 만큼 잘 키워보라고. 그 말대로 내 자식이고 내가 낳았는데 내가 뭘 못할까 싶어서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즈음에는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살았다. 그러다가도 암담한 생각이 많이 들때도 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음이 온 것 같다. 그 모든 불안한 생각이 부질없다고 어느 순간 느껴졌다. 나와 아이가 함께 하는 동안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애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그 부족한 가운데 행복하게 아이랑 재밌게 살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딸이 좋아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고단한 일이었지만 그때부터 아기 아빠랑 캠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며 자연과 접할 수 있도록 딸을 데리고 많이 다녔다.

내가 건강해야 딸과 오래 사니까 운동도 하고 사회생활도 해가면서 더 열심히 산다. 발달장애 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살 이유는 하나도 없다. 좋은 거 먹여주고 예쁜 거 입혀주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

편견 없는 세상을 기다리며

누구나 장애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지인이나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다. 멀리 봐서 내 손자가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 그냥 불쌍하고 측은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 또한 한 인간으로서 바라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금은 내가 운전하니까 길에서 사람들하고 접할 기회는 거의 없다. 운전하기 전에 걸어서 딸 데리고 시장도 다니고 여기저기 지나가면 어떤 엄마와 아이들은 이상한 외계인 보듯 그렇게 딸을 보고 지나간다.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서 왜 자꾸 쳐다보냐고 말하기도 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아직도 장애, 비장애가 아니라 정상인, 비정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정상, 비정상 따지기 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에 대한 교육만 제대로 시켜도 자라서 편견 없이 장애인을 바라볼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부모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있

다면 자녀 또한 장애 아동과 같이 짝꿍 되는 것도 싫어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싫어한다. 그런 자녀가 성인이 되면 사회가 계속 차별적이고 편견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장애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 있고 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대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갑자기 교육 한 번에 세상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꾸준하게 배우고 유치원에서부터 평등하고 존엄하게 대우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몸으로 느끼고 자라야 한다. 특히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점점 나아지고 있는게 느껴지지만 진정으로 모두가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기다린다.

가출밖에 답이 없었다

가출밖에 답이 없었다

강제 입원

출산과 입양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들

가족

취업과 독립



가출 밖에 답이 없었다

엄마는 아프시다. 내가 아주 어릴 때, 엄마는 아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셨다. 그때 사고가 크게 났고 엄마는 머리를 많이 다치셔서 수술을 하셨다. 수술은 잘되었지만 평생 장애는 남았다. 그때 장애 판정을 받으셨다. 그리고 큰 언니, 작은 언니, 나, 딸만 셋인 집에서 자랐다. 어린 세 자매를 아픈 엄마가 돌볼 수 없어서 큰 언니는 어릴 때 할머니와 살고 둘째 언니랑 나는 부모님과 살다가 나중에 우리도 할머니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엄마가 장애를 얻기 전에도 자주 아팠는데 나를 출산하고 나서부터 더 많이 아팠다고 한다. 작은 언니를 키울 때에는 공부도 가르쳐 주고 그림도 알려주던 엄마를 기억한다. 내가 초등 1학년 어느 날 열나고 속이 울렁거리고 많이 아팠던 날이 있었다. 내가 울렁증이 심해서 신발장 앞에서 구토를 했다. 그때 토했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많이 맞았는데 내 머리를 때린 물건이 흠키와 스프레이였다. 아이가 토한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내 생각에 엄마가 그랬던 이유는 아빠를 너무 닮은 내가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가 엄마를 너무 괴롭히니까 아빠를 닮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때 엄마에게 머리를 맞아서 피가 많이 났고 기절했다. 그래서 중간 기억이 없다. 저녁에 술 드시고 들어온 아빠가 내가 기절해 있던 것을 봤다. 그때 아빠는 애 머리에서 왜 피가 나냐고 물었고 술기운에 엄마에게 화를 냈다. 그리고 아빠는 술을 많이 드시면 엄마를 엄청 때렸다.

그 일 후에 할머니가 나를 할머니 집으로 데려갔다. 나중에는 작은 언니도 와서 세 자매가 모두 할머니랑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됐다. 사실 부모님과 사는 집에서도 작

은 삼촌이 집에만 오면 내 몸에 손을 대는 일이 있었다. 내 나이 여섯 살 때 성추행을 처음 당한 일이 기억이 난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술 먹고 귀가한 작은 삼촌에게 추행을 당하는 일이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나는 작은 삼촌과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출했다. 언니들도 어릴 때부터 삼촌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작은 삼촌이 나와 언니들에게 그런 짓을 해도 어린 우리가 삼촌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 아무도 나서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린 내 생각에 가출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출해도 딱히 갈 곳은 없었다. 그냥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졸릴 때 가림막이 있는 통돌이 미끄럼틀에 숨어 있었다. 그 통돌이 안에 있는데 할머니가 날 찾으러 왔다. 할머니가 나 찾으러 다니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다.

그렇게 집을 나오면 놀이터에서 자거나 친구 집 가서 잤다. 그러다가 갈 곳이 정말 없으면 학교에 들어가서 잔적도 있었다. 가출해도 임시적인 공간이기에 언젠가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광주에 살고 있으면 계속 삼촌에게 당하는구나 싶어서 서울로 갔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면 광주에 오고 다시 또 집에 들어 갔고 집에 들어가면 가출했다고 매를 맞았고 다시 학교 다니다가 또 한 번씩 삼촌이 건들면 다시 집을 나갔다. 나는 떠돌이처럼 살았다. 내가 왜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지 어른들은 잘 몰랐을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강제 입원

중학교 때 게임하다가 만난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다. 그 친구는 원주에 살고 있었다. 필요한 거 대충 챙겨서 광주의 다른 친구와 함께 원주로 갔다. 같이 가출한 그 친구는 새엄마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어떤 때는 씬밥을 주고 억지로 먹게 하고 친구한테 너무 함부로 했다. 그때는 정말 집을 떠날 각오를 하고 원주로 갔다. 원주 친구집에 잠깐 머무르고 나와서 지내다가 돈이 떨어졌고 우리는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떤 식당에 들어갔다. 식당 아줌마한테 타지에서 왔고 갈 데도 없고 배가 너무 고프다며 밥 좀 주실 수 있냐고 정중히 물었다. 식당 아줌마는 우리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더니 밥은 주셨다. 우리가 밥을 다 먹기도 전에 경찰이 왔다. 사장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신 후에 딱 봐도 가출 청소년이라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우리가 청소년이라서 경찰은 청소년 쉼터로 보냈다. 원주까지 와서 나는 쉼터로 들어갔다. 쉼터에서는 내게 왜 가출했냐고 물었다. 나는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내 주위에 어른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고 말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너무나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이제 죽어도 집에 돌아가기 싫다는 마음으로 그간 작은 삼촌의 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고 다신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다. 하지만 집에 연락했고 막내 삼촌이 와서 나를 데리고 광주로 갔다. 식구 중에 처음으로 막내 삼촌이 내가 가출한 진짜 이유를 알았고 그 사실이 아빠 귀에도 들어갔다. 그때 아빠가 한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밖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다니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했다. 나는 진짜 어이가 없었다. 아빠라는 작자가 그랬다. 광주로 돌아와 일단은 집으로 갔고 다음 날 일어나서 학교에 갔는

데 학생부장 선생님이 이제 더는 안 되겠다며 너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 가출을 수시로 하니까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학생부장 선생님과 할머니 두 분의 동의하에 나를 정신병원에 넣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데 들어가야 하나고 따지고 병원에서 술하게 싸웠지만 내가 이렇게 계속 싸우면 못 나가는구나 싶어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공부만 했다. 병원에서 심리 치료도 받고 처음으로 워터파크에 가봤다. 그것이 인생 첫 여행이었기에 너무 좋았다. 진작 이런 데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내가 책을 읽으면 문화상품권도 주고 일주일 용돈도 주었다. 어릴 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병원이나 쉼터에 들어갈 생각을 못 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고 이 사실을 어떻게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했다. 내가 이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병원이든 쉼터든 내 발로 더 일찍 갔을 텐데 말이다. 나는 경험자이기에 잘 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말을 못 한다. 나 또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했고 그간 수많은 어른들은 내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해주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런 일은 학교에서 잘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열일곱 살에 정신병원에서 공부시켜서 중학교 졸업을 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내는 쉼터에서 살았다. 하지만 핸드폰도 걷어가고 저녁에도 자유롭게 못 했다. 일찍이 가출을 시도하며 자유롭게 살아온 나는 독립을 결정했다. 독립을 위해 어떻게든 일을 해야 해서 친구한테 아르바이트 자리를 부탁했다. 편의점에서 일하던 친구였고 그 친구가 잠깐 쉬고 싶다고 그 대타 자리를 부탁해서 편의점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다. 대타로 들어간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6개월 동

안 일했다. 그 뒤에는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큰 언니 집으로 잠깐 들어가서 살았다. 두 달 살다가 또다시 둘째 언니 집으로 갔다. 그러다 나는 독립하기 위해 원룸을 알아봤고 혼자 살게 됐다. 주중에는 마트, 주말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평일에 마트에서 계산도 하고 물품 정리도 했다. 그러다가 사장님이 나를 믿었는지 오픈과 마감 모두를 맡겼다. 어느 날은 눈이 아주 많이 왔는데 혼자 가게 문 열고 냉장고 불 켜고 오픈 준비를 하며 열심히 가게 일도 했다. 주말엔 편의점 알바도 시작했다.

출산과 입양

집 나와 살면서 알게 된 친구들이 있었다. 그 친구들은 조폭들이랑 연이 많이 닿아 있었다. 열아홉살 즈음 조폭과 관련된 사람과 사귀게 되었다. 그때 친구들이 조폭들과 사귀고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어울리다가 조폭과 사귀게 된 것이다. 그 사람은 키 192에 건장한 남자였다.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과 연애할 때 애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욕을 풀기 위한 도구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성 착취를 당한 것 같다. 그 와중에 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나는 임신 8개월 되었을 때 미혼모 쉼터로 들어갔다. 일부러 큰 옷을 입어서 마트 사장님은 내가 임신한 줄 모르고 있었다. 8개월째 될 즈음 병원에서 아기가 많이 내려와 있다며 그만 움직여야 한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고 미혼모 쉼터에서 지내게 되었다. 출산하고 나서 입양을 보낼지 키울지 정하라는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아기를 키우고 싶었다. 나는 정말 아기를 키우고 싶었지만 가진 것도 없고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이를 위해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때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기를 보고 마음에 든다고 입양을 결정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한테 연락이 왔다. 어디 아기를 입양보내냐며 불같이 화를 내셨다. 아기 데리고 오면 아빠가 다 지원해준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아빠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미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입양 절차를 밟았다.

입양 가기 전 소태동에 있는 영유아보호소에 아기를 보러 갔다. 그곳에서 내가 낳은 아기도 보고 핸드폰에 아기 사진도 많이 찍어 저장해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아기 사진은 딱 하나 남아 있다. 아기가 어디로 입양되는지 미혼모인 내게는 안 알려준다. 만약 아이가 과양을 당하거나 양부모가 아기한테 학대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지 혹시 모르는 일이다. 그런 경우에 내 정보를 남겨두면 나중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아이가 나를 찾을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상황에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라도 나는 계속 대충 살면 안 되겠다 싶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엄청나게 했다. 스무 살에 아기를 낳았고 아이를 입양 보내고 고통을 잊으려고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렇게 살다가 성인 쉼터에 들어갔고 자활에서 일하며 살았다. 일을 해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일하면서 자활 사업에 참여했다. 의무적으로 수입의 70%는 적금해야 했다. 쉼터에서 고졸 검정고시를 위한 대안학교를 알아보다가 담당 선생님이 소개해 준 곳에 다니게 되었다. 대안학교를 다니며 공부해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며 간호조무사 학원에 다녔다. 매일 학원 끝나면 식당에 가서 일하고, 병원 실습을 나갈 때는 병원 실습 끝나고 식당에 가서 일하며 바쁘게 지냈다. 식당 일

은 힘들었다. 작은 식당이라서 사장님과 알바생은 나 하나였기에 주방 갔다가 홀 갔다가 일인이역으로 열심히 일했다. 식당 사장님은 나한테 잘해주셨다. 주방과 홀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들

아파서 일을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기댈 사람도 기댈 곳도 없다는 생각에 힘들었다. 아파서 일을 그만두고 계속 방세는 밀리고 생활비가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다. 4년 정도 걸쳐서 나누어 갚아가고 있는데 이제 1년 정도 남은 것 같다. 한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잠도 오지 않고 수면제를 거의 2년 동안 복용했다. 그러다가 자해도 했다. 너무 힘들었다. 내 삶에 전혀 안정이라는 것은 멀게 느껴졌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 잘 버티다가도 한순간 우울감이 몰려올 때가 있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약을 많이 먹고 손목을 그은 상태로 누워 있었다. 누워 있는데 친구가 들어와서 날 흔들어서 깨웠다. 친구가 물 먹이고 화장실 데리고 가서 토하게 해서 겨우 정신을 차린 적이 있다. 힘들어서 다 그만하고 싶었다.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더 겪으며 살아봐서 원룸에서 살긴 했지만 친구 누가 가출했다 하면 내 집에서 지내라고 했다.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고맙다고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기도 했다. 월세방이지만 어쨌든 안전한 방도 있고 돈은 내가 버니까 쉬다 가라고 했던 것이다. 친구들이 부담스럽게 느낄까봐 나도 힘들면 너한테 이야기하겠다 말하며 친구와 같이 지내던 적도 많다. 친구들

이 가출하는 것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다가 독립하기도 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남자친구랑 살다가 헤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들어보면 남자친구가 때리는 애들도 있었다. 그건 아니다 싶어서 헤어지게 하고 내 집에 와서 살라고 하기도 했다.

가족

사실 우리 집만 생각해도 걱정이 너무 많다. 엄마의 수급비나 할머니 전세 보증금 등 막내 삼촌이 관리하고 있는데 삼촌이 할머니네 집 보증금도 달라고 해서 다 가져갔다. 그런데 삼촌이 월세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한다. 엄마를 돌본다는 핑계로 돈이란 돈은 다 받아 간다. 막내 삼촌이 교회 전도사였는데 퇴직하고 아직도 교회에 머무르고 있는데 당뇨가 있으셔서 눈 수술하시고 한쪽은 실명된 상태다. 그런데 수입이 없어서 배달도 하신다고 한다. 막내 삼촌 상황은 안타깝지만, 할머니 집 보증금을 다 깎아 먹고 엄마도 잘 안 챙기고 있는 걸 생각하면 답답하고 화도 난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알바하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해야 했다. 나에게는 다시 안보고 싶은 사람이지만 작은 삼촌은 그래도 할머니는 챙긴다. 중요스럽지만 그래도 자신된 도리는 하는 사람이라 할 말이 없다. 나는 나대로 힘들고 쪼들리는데 할머니 엄마 걱정에 미쳐버릴 것 같을 때가 있다.

아빠는 엄마 앞으로 3천만 원 빚을 지고 집을 나갔고, 교통사고를 낸 적도 있어서 아빠가 교도소도 다녀왔던 적도 있다. 사람을 쳐서 교도소에 가고 그 덕에 나는 어린 나이에 교도소도 가봤다. 아마

어릴 때라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아버지가 집에 없었던 때는 교도소에 있었던 때일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보건 선생님이 나와 언니의 담임 선생님들을 오라고 해서 우리 옷을 다 벗겼다. 아버지가 언니와 나를 심하게 체벌해서 그랬다.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기에 우리가 맞았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경찰을 부르고 아버지도 부른 것이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혼날까 무서워서 신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경찰서에 불려갔다. 그때 엉덩이에 멍이 들어서 앓을 수가 없을 정도였으니 선생님이 모를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안 보이는 데만 때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학대는 드러났다. 그 이후 아버로부터 해방되어 할머니 집에 왔지만, 삼촌들은 더했다. 맞기도 했고 남모르게 성추행도 겪어야 했다. 이놈의 세상은 나한테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낳아놓고서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지난해 유월에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약간의 알코올중독 증상이 있었다. 또 고혈압이 있어서 병원에서 술을 그만 드시라고 말을 했는데 술을 끊지 못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낚시하시다가 넘어지셨고 그날이 아버 생의 마지막 날이 됐다.

취업과 독립

검정고시 합격 후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며 공부해서 간호조무사 시험에 붙었고 취업도 하게 되었다. 내가 실습한 광주의 병원으로 가고 싶었으나 그 병원에서는 신입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취업이 급했고 취업이 급하면 일단 전남 쪽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들었다. 고흥이나 장흥 등 멀리도 생각했는데 일단 가까운 화

순으로 면접을 보러 갔고 면접을 보자마자 바로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다. 지금 당장은 빨리 배우고 적응을 잘해야 한다는 것만 생각한다. 여기서 계속 다니게 될지 아니면 몇 년 다니고 그만둘지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최소 1년은 최대한 열심히 일을 배워야 한다고 다짐한다. 이 병원 간호사 선생님들은 친절하고 모두 나에게 잘해주신다. 출근하고 며칠 되지 않아 다리를 다쳐서 직원분들에게 면목이 없었다. 깁스를 해야했는데 선생님들은 나에게 손이 많이 간다고 놀리면서도 걱정을 해주시는 게 느껴져서 고마웠다. 또 일하는 병원에서 기숙사도 제공하고 있어서 좋다. 방 두 개가 있는 아파트에 다른 선생님과 산다. 당장 독립하고 집 구할 여력이 안됐는데 병원에서 지원하는 아파트와 병원 급식 덕분에 숙식을 잘 해결하고 있다.

예전에 많이 힘들 때 나는 친구들을 생각했다. 양지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알게 된 친구랑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낸다. 그 친구가 진짜 힘들 때 연락하라며 내가 부르면 언제든 온다고 했다. 내게 그런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된다. 그리고 언니들 생각도 난다. 작은 언니가 동생이 병원에 취업했다고 주변에 내 자랑을 하고 다닌다. 언니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조카가 철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언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언니는 내가 취업해서 대견하다며 용돈을 주고 갔다.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이다.

지금, 가장 기대되는 순간

쉼터에 가다

아르바이트

가족

대학에 가다

학업과 아르바이트

연애

지금, 가장 기대되는 순간



쉼터에 가다

열아홉 살에 아는 형을 통해 쉼터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그 형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쉼터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들어간 쉼터에서 19살부터 24살까지 5년 반 동안 지냈다. 생각보다 쉼터에서 지내면서 좋았던 부분들이 많았다.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규칙과 제약도 많았지만 나는 전혀 불만이 없었다. 오히려 집보다 편한 느낌이었다. 쉼터에서 지내는 동안 외출하면 교통비도 챙겨주고 일주일 용돈도 챙겨줬다. 저녁밥도 챙겨주고 야식도 챙겨주고 옷도 챙겨줬다. 나를 돌봐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쉼터들은 대부분 가정집 모양이었다. 내가 처음 간 쉼터는 큰방과 작은방이 있고 부엌, 거실, 사무실이 있었다. 큰 방에서 5명이 자고 작은 방에서는 2명이 자고 이렇게 생활했다. 나의 쉼터 생활은 중장기 쉼터 5년 그리고 단기 쉼터 6개월을 더하면 총 5년 6개월이 된다. 쉼터에서 지내며 힘들 때면 쉼터에 있을 때와 집에 살았을 때를 비교해봤다. 집과 쉼터를 비교해보니 쉼터에서 지낼 때 더 안전하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적응하고 살다 보니 더는 이런저런 비교할 것 없이 쉼터에서 사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만족스럽게 살았다. 하지만 법적 청소년의 나이가 만 24세라서 25살이 되면 쉼터를 떠나야 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돈도 없고 막막해서 쉼터에 최대한 더 있길 원했다. 나이 때문에 쫓겨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젠 개인 공간도 갖고 싶고 혼자 살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다. 장기 쉼터에서 지내고 있다가 LH 매입임대에 당첨되어서 갑자기 독립을 준비했다. 좋은 소식이었지만 스스로도 독립할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LH 매입임대 빌라를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빌라에는 가전제품 옵션이 아무것도 없다. 냉장고, 세탁

기, 가스레인지 등등 가전제품과 가구를 다 사야 했다. 다행히 쉼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 그리고 독립한 후,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씩 지원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나도 그 대상에 해당되어 지원금도 받게 되었다. 25살, 1인 가구로 내 인생 첫 독립생활이 시작됐다.

나는 3남 1녀 중에 막내였다. 다들 막내라고 하면 예쁨을 많이 받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것은 사랑받은 기억보다는 집에서 일했던 기억 뿐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교해서 집에 오면 설거지, 빨래, 청소, 식사 준비 등 온갖 집안일을 다 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집안일을 하시다가 형들과 누나가 돌아가면서 했다. 그런데 내가 좀 컸다 싶었을 때가 초등 고학년이었는데 집안일이 전부 내 일이 되어 있었다. 그때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형들이 시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알았다. 어릴 때는 형들이 무서웠다. 말을 안 들으면 때렸고 맞기 싫어서 일했던 것 같다. 큰형이 88년생이고 내가 97년생이니까 9살 차이가 난다. 큰형은 좀 폭력적이었고 말도 거친 편이어서 뭐든 시키면 그냥 했다. 형에게 많이 맞았을 때는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그럴 때면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셔서 큰형이 많이 혼났다. 나는 그 어떤 상황도 편하지 않았다.

어릴 때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나의 상황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왜 저런 환경에서 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 생각할 여유도 잠깐이고 집안 사정으로 중학교도 자퇴하고 바로 돈을 벌 생각으로 학교도 다니다 말다 했는데 학교에서 졸업으로 처리해줬다.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일을 시작했던 곳은 작은 삼촌이 운영하시던 의류공장 일이었다. 작은삼촌은 서울에서 의류공장을 작게 하고 계셨다.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삼촌한테

나를 서울로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서울로 일하러 가게 된 것이다. 삼촌의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며 한 4개월 동안은 월급을 못 받았다. 삼촌 회사가 어려워서 수익이 없다 보니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인 듯했다. 삼촌은 내게 다른 공장을 소개시켜 주셨다. 나는 그쪽으로 가서 두 달 정도 일하다가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광주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열심히 일할 곳을 찾았고 그렇게 들어간 곳이 충장로에 있는 액세서리 가게였다. 그곳에서 포장일과 잡일을 했다. 그러던 중에 큰형이 일했던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2교대로 들어서 하기도 했다. 내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고 큰 형은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일했다. 12시간씩 하루 2교대로 1년을 피시방에서 일했다. 일만 하는 삶, 그리고 집안 일까지. 그러다 너무 지쳤고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그때 알고 지내던 형이 쉼터를 소개해 준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쉼터에 살면서 이십 대 초반까지 카페에서 일을 했다. 그 카페 사장님은 옛날에 좀 유명했던 짱패 출신이었다. 사장님은 덩치도 크고 성격도 되게 난폭한 사람이었다. 그 카페 매장이 오픈하고 한 달 뒤에 내가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다. 오픈 초기에는 멤버들이랑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런데 짱패 출신이었던 사장님이 커피에 대해 잘 모르니 직원들과 의견 충돌이 많았다. 메뉴를 좀 바꿔보자 할 때 사장님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다른 방향이 더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면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 카페는 가맹점이었

고 사장님은 가맹점 내부에 다른 사업자를 내서 제과점을 오픈하셨다. 이런 경우 가맹점 본사 입장에서 사장님이 계약 위반을 하는 것이 된다. 사장님은 그냥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해서 가맹점 본사 회장님이 직접 와서 요청하며 말했다.

그 카페에서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하루 9시간을 일했다. 보통 카페는 2인 1조 3교대 근무해서 오픈 두 명, 미들 두 명, 마감 두 명이었다. 내가 미들 타임 때부터 마감까지 두 타임을 맡아 일했다. 처음에 미들 타임 아르바이트 한 명이 그만뒀다. 그래도 그때는 사장님이 믿을 인원 구할 때까지 좀 더 고생해 달라 하시기에 그럼 최대한 빨리 구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일했다. 그런데 2주 3주가 지나도 사람을 안 구하는 것 같았다. 사장님한테 언제 인원이 채워지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사장님은 너 혼자서도 너무 잘하는 그것으로 보인다며 그냥 네가 혼자 하면 안 되겠냐고 하셨다. 그 말에 바로 그만두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장님이 좋은 사람으로 보였다. 나를 믿고 가게를 맡기는 건가 생각했다. 업무 강도가 너무 세고 힘들다보니 마감 한 명도 그만두게 됐다. 사장님은 인원 충당이 안 된다며 너 혼자서도 잘하니까 네가 두 타임 모두 혼자 하라는 식으로 말했다. 도저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닌 상황이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2천 원인 매장이었고 기본 하루에 혼자 일해서 찍을 수 있는 매출이 한 50만 원이고 이 정도만 돼도 정신없이 바쁘게 두 타임을 나 혼자 일해서 140만 원을 찍은 적도 있었다. 그 정도 매출을 혼자 달성하려면 정말 한숨도 쉴 새 없이 일해야 한다. 화장실도 못 가고 밥 먹을 시간도 없다. 게다가 마감 시간에는 마감 준비도 해야 하고 손님도 받아야 하고 더 정신이 없다. 오전에는 사장님이 사장님 지인분과 나와서 같이 오픈 타임 영업을하시고 나 혼자 미들 타임

때부터 마감까지 그렇게 4개월을 일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상해서 사장님한테 말했다.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몸이 많이 상해서 진짜로 이제는 인원을 충당해 주셔야겠다고. 아니면 밥 먹을 시간이라도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말하길 ‘그럼 너 담배 피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앉아있지도 마라. 쉬는 시간 절대 없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그때 완전 믿음이 확 깨졌다. 나는 ‘여기서 일 못하겠습니다. 오늘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날 정리했다. 보통 나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둬도 한 2주 정도는 사람 구할 시간을 드리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하는데 진짜 도저히 기다린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며칠 기다려줄 여유가 없을 것 같았다. 사장님은 붙잡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사장님은 나를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기계로 보는 느낌이 들었다. 사장님은 나를 씨먹을 만큼 씨먹고 그냥 가겠다고 하면 그냥 보내야겠다는 느낌이었다. 4개월 동안 두 사람의 인건비를 아낀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 같았다. 그 카페에서는 좋은 기억도 있지만 결국 허탈감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래도 이 카페에서의 경험들이 나에게서 큰 경험이었고 사장님은 영 아니었지만 일하는 직원들한테 많이 배웠다. 내 성향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는 성격이다.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면 약간 선을 긋는 편이다.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동안 나 자신도 엄청 많이 바뀐 부분이 있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되게 밝고 활발하고 나와는 완전 반대였다.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서로 챙겨주고 배려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 그때 처음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회식도 해보고 일 끝나고도 만나서 놀고 쉬는 날에도 와서 다른 직원들 일을 도와주곤 했다. 직원들끼리 사이가 좋다 보니 만약에 누가 급한 일이 생

겨서 구멍이 나면 서로 채웠다. 솔직히 말하면 거기 사장님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흠어지지 않는 것 같다. 마지막에 남은 나 혼자 카페에서 일했다. 오픈 초기 직원은 다 나가고 나 혼자 남았었다.

지금은 몇 년 전에 아르바이트했던 카페에서 다시 일한다. 그때 나에게 일을 배우던 신입 직원은 계속 일하고 있었다. 이 친구가 말하길 예전에 나한테 일을 배울 때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가르치고 시키니까 나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했다고 한다. 지금 와서야 좀 친해져서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했다. 3년이 지나서 나를 다시 보니 지금은 장난도 자주 치고 잘 웃고 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전과 달리 친해졌다. 아직도 가끔 그 친구가 도대체 그 몇 년 사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 나도 그때 내가 왜 그토록 힘들었고, 왜 그토록 누군가를 힘들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가족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초등학교 다닐 때였다. 그때 나는 어머니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초등학생 때 어머니 집에 누나와 함께 놀러 가서 2박 3일 동안 있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살 때 아버지와 이혼하셨다고 했다. 이혼하신 후 어머니가 집을 떠나고 아버지와 나, 큰 형과 작은 형, 누나, 네 남매가 같이 살았다. 혼자 사시며 어머니는 상담 일을 하시고 사무실이 따로 없어서 집으로 손님이 오셨다. 어머니는 손님이 올 때는 방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다. 그날도 손님이 오셨고 어머니는

상담 중이었다. 그런데 그때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가려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화장실 가는 길에 상담하고 계신 손님이랑 내 눈이 마주쳤다. 손님을 보내고 나서 어머니가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방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나왔냐?’며 화를 내셨다. 그 순간 나는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도 대체 어린 나에게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머니는 그저 나를 숨기고 싶어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딱 한 번 뵈던 그날의 기억이 오래 남아 잊혀지지 않았다. 최근에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고 나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때 기억이 마음속 깊이 상처로 남아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다.

지금 큰형과 작은형은 어머니 집에서 함께 지낸다. 누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일하며 지내고 있다. 아버지는 원래 뭇해라, 하지 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의 집인 것 같다. 아버지는 광주에 계시고 지금도 아버지랑 연락하고 지내며 아버지와는 사이가 좋다. 어렸을 때 가족 중에 나를 제일 많이 생각해 주신 분이 아버지인 것 같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 제일 따뜻한 느낌이 드는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광주에서 지내며 연락드린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일 하는 카페에 교복 입은 학생들이 올 때면 나도 모르게 고등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근데 컴퓨터에 와서도 학교에 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것은 집에 빚이 많아서였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어찌다 보니 삼천만 원 정도 빚이 있다고 하셨다. 아버지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차실 것 같아 도움을 드리려고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돈을 몇백 만원씩 모으면 바로 아버지께 드렸다. 나는 스물네 살에

아버지 빛을 다 갚아드렸다. 빛을 갚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일만 하며 지냈던 것 같다. 빛을 다 갚아드린 후에는 공허함 같은 감정이 밀려왔다. 20대 초반까지는 빛 갚을 생각만 하고 살았다. 근데 그 버겁던 빛을 다 갚고 ‘난 이제 뭘 하며 살아가야 하나?’ 내 삶에 대한 고민을 처음 하게 됐다.

대학에 가다

아버지 빛을 갚아드리고 좀 쉬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했다. 막상 내 삶을 고민하는 시간이 앞에 닥치니 뭘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에 나는 대학교 진학을 결심했다. 정작 그 결정을 하기까지 고민의 시간은 짧았다. 한 3개월 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 대학 진학을 결정했다. 고민이 들 때 컴퓨터 선생님들이랑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나의 적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십 대 초반까지 나는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 뭔가를 꾸준히 공부하거나 일해서 그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단기 컴퓨터 소장님이나 중장기 컴퓨터 선생님들이었다. 선생님들을 보면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전 처음 보는 아이들인데 컴퓨터에 오면 선생님들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늘 밝게 웃어주고 그 덕분에 늘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그런 모습을 보다가 내가 과연 선생님들과 똑같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컴퓨터 선생님들처럼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나의 진로에 관해 구체적으로 조언을

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쉼터 선생님들은 나에게 송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를 추천했다. 그런데 나는 사회를 좀 더 넓게 바라보고 싶어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으로 지원했다. 어렵지 않게 대학에 합격했고 지금은 사회복지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다.

학업과 아르바이트

지금도 일하면서 대학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주말 아르바이트로 패밀랜드 안에 있는 카페에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6시나 7시까지 일한다. 주 3일은 강의를 몰아서 듣고 남은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한다.

방학에는 산학인턴십이라고 해서 학교와 기업이랑 협력해서 같이 하는 사업에 신청해서 일을 한다. 학교 선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알게 되었고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시작할 수 있었다. 학점도 주고 일한 만큼 돈도 벌 수 있다니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턴십에 합격하고 나니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겁을 많이 줬다. 신청한 사람들이 일하다가 많이 도망간다고 너도 못 버티고 도망갈 거라고 엄청 겁을 줬다. 그래도 나는 여기서 꼭 해보야겠다고 결정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걱정보다 특별할 것이 없었다. AS 상담업무로 그냥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이고 고객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 메뉴얼 대로 답변하면 되는 평범한 일이었다. 오전 9시가 되면 대기 중으로 전화를 받을 준비 하고 12시 되면 식사로 바뀌놓고 또 1시 되면 다시 대기 중으로 바뀌서 전화 받고 퇴근도 칼같이 한다. 나는 이런 계획적인 시스템이 좋다. 지금은 방학이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있다.

가끔 몇몇 고객님들이 불만 표출로 심하게 대하기도 한다. 아주 심한 고객은 욕두문자를 쓰시기도 한다. 조곤조곤 이야기하시는 분과 욕을 하시는 분들과 사정을 이야기하며 우는 분들이 있다. 조곤조곤 길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욕은 안 하니까 원하는 것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 그런데 욕하시는 분들을 대하면 나도 화가 나니까 2시간짜리 욕받이 전화 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먼저 절대 안 끊어준다. 어차피 당신은 욕하면서 2시간 동안 전화하고도 문제 해결은 안 됐고 당신만 또 화날 것이지만 나는 퇴근 시간 가까워지면 퇴근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버틴다. 진짜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인력 문제로 못 해 드리는 경우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안 좋다. 그래서 비교적 욕하는 사람들 전화가 때로는 속 편하고 좋다.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해봐서 이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요즘 사회복지학과의 스무 살 신입생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20대 초반 새내기와 재취업을 위해 만학도로 입학한 어른신들 사이 세대 갈등이다. 우리 학과는 새내기와 만학도가 거의 반반 비율로 나뉜다. 최근 학과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만학도분들이 따로 사석에서 만나 회의를 하셨다고 한다. 만학도분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불만을 표출한다. 마찬가지로 새내기 쪽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이런 세대 갈등이 좀 있다.

내년에는 학생회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학생회 활동을 통해 학생 복지에 대해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며 1학년이라 전공 수업은 두 개 듣는데 공부가 재미있다. 내가 무엇을 전공으로 선택할지는 더 공부해야 알 것 같다. 친구들은 다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대학 공

부가 재미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고 싶다. 어떤 일을 하는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만약에 공무원이 되어 일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다. 나의 남다른 삶의 경험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것 같다.

연애

지난 여름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 수년 만에 연애를 한다. 늘 연애의 끝이 좋지 않아서 내 인생에서 연애는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는데 그 친구는 처음 보는 독특한 캐릭터라 다짐이 무너졌다. 카페에서 같이 일하며 만난 친구였다. 그 친구는 카페 일을 여기서 처음 한다고 했다. 나는 오래 일해서 매니저 이모와도 잘 아는 사이였다. 이 친구는 처음에는 내게 경쟁심,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았다. 일하다가 이 친구를 보면 내가 1분에 커피 세 잔을 만들 때 본인은 초보라 커피 한두 잔 만들었다. 그리고 내게 지지 않으려고 일하는 모습이 느껴졌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게 보였다. 그리고 내가 실수하면 신나 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나와 그 친구가 연애하게 되면서 이런 모습이 귀여웠다고 말하니 본인도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했다. 내가 보는 그 친구도 희생적으로 보일 만큼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여자 친구로 만나면서 어느 날, 내가 셔츠를 자주 입는 이유는 구겨지지 않는 옷이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을 기억

했다가 내게 그런 셔츠를 선물로 줬다. 사소한 내 말 하나도 귀 기울여 듣는 여자 친구에게 고맙고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다. 여자 친구와 어렸을 때 이야기도 많이 했다. 중학교 졸업하고 돈 벌려고 사회로 나왔던 이야기와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았던 이야기 등. 여자 친구랑 얘기할 때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대수롭지 않게 듣고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그런데 본인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하면 딱히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학교에 다니는 단순한 삶이었다며 할 말이 없다고 한다. 내가 또래와 달리 많은 일을 겪었다며 오히려 내가 남다르다고 했다. 이 친구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좀 많이 힘들게 살았나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지금, 가장 기대되는 순간

지금의 독립생활이 너무 좋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좋다. 그리고 나는 누가 권해서 할 일을 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할 일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 그러면서도 좋은 것 반, 좀 아쉬운 것 반이 있다. 혼자서 해결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것도 여전히 힘든 점이다. 독립 후에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으니 온전히 내 삶은 내 몫이고 내 책임이라는 생각에 힘들었다. 독립을 한 후에 얼마 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다. 월 30만 원 지원금이 있지만 월세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우느니 나를 떠밀어 뭔가를 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나는 나 자신을 어딘가에 처박았던 것 같다. 그래야 무언가를 시작이라도 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처음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정하고 면접 보는 것도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 많은 일을 해봤어도 다시 또 다른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항상 어려웠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설득했던 것 같다. 일단 면접을 보자, 그리고 누군가 날 필요로 하면 출근해보자고. 어떤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가서 해보고 판단해보자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바빠 몸을 움직이게 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나를 단련시켰던 것 같다. 나는 남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조언을 못한다. 네가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으면 뭐든지 해보라고 말한다. 나는 스스로 선택하고 뜻대로 하라는 자유로운 집 분위기가 결과적으로 좋았던 것 같기도 하다. 무한한 자유도 주고 책임감도 같이 주면, 스스로 고민하고 뭐든 하게 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았다. 그렇게 살다 보니 딱 길로 썰 정신도 없었던 것 같다. 대학에 다니며 계속 일을 해야하지만 살면서 요즘이 제일 즐겁다. 그간 고생한 시간에 대해 보상받는 느낌이다. 주변 사람들도 내가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모든 것이 좋다.

내 인생은 이제 시작

국제 결혼을 결심하다

열아홉, 아이를 낳다

별거와 이혼

아들의 사춘기와 학교생활

이직과 공부

이주민 센터 봉사활동

내 인생은 이제 시작



국제 결혼을 결심하다

어릴 때 외할머니 댁에서 논일을 했던 것이 제일 오래된 기억인 것 같다. 내 고향은 베트남 남쪽, 호치민 근처 ‘띠이난’이라는 곳이다. 1984년 딸 셋인 집에 둘째로 태어났다. 우리집은 형편이 좋지 않아서 부모님은 늘 많은 일을 하셔야 했고 우리 셋을 키우기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집 바로 옆에 있는 외갓집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살았다. 우리집에서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언니가 동생을 키웠다. 나중에 동생은 학교에 다녔지만 나와 언니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어릴 때 외할머니와 같이 논에서 일을 많이 했다. 외할머니를 따라다니며 모내기 일이 있는 집에 가서 모내기를 도와줬다. 어린 나는 바닥에 떨어진 모를 주워서 남은 자투리땅에 심었다. 쌀이 없을 때면 고구마로 밥 대신 찌먹고 때로는 갈아서 전을 부쳐 먹기도 했다. 할머니가 그냥 고구마만 찌 먹으면 질릴까봐 고구마를 갈아서 여러 가지 음식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다양하게 조리한 음식들이 더 맛있었다. 고구마를 갈아서 대나무 잎이나 다른 재료와 붙여 찌먹으면 정말 맛있었다. 고구마를 밥 대신 볶아먹을 정도로 우리 집에서는 쌀이 귀했다.

우리 집 지붕은 코코넛 잎을 덮어서 만든 집이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비가 새서 잠을 못 잤다. 동네에서도 우리 집이 좀 어려운 편이었다. 그래서 외할머니댁에 살면서 열 살 때부터 모내기를 하고 돈을 벌어야 했다. 외할머니에게 제대로 배운 모내기라서 나는 자신이 있었다.

내 나이 겨우 열두 살에 시내 쪽에 잘 사는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아이들 돌봐주고 밥하고 빨래하고 가사 일을 혼자 거의

다 했다. 그러다 직장생활도 하게 됐는데 열여덟 살에 직장 다니며 알게 된 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분이 자기 이모가 국제결혼 연결 업체에서 일한다면 국제결혼을 원하면 소개시켜 준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나와 가족들은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잘 살게 되면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도 했고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해 국제결혼을 결심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열여덟 살에 사진 한 장을 국제결혼 업체에 보냈다. 그리고 2002년 12월 첫 주에 국제결혼 정보업체로부터 한국에서 신랑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만나보겠냐는 말을 들었다. 지금이라면 영상통화라도 좀 하고 만났겠지만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라서 결혼을 원하는 남자의 사진 한 장만 보여줬다. 나는 그 사진을 보고 만나보겠다고 말했다. 2002년 12월 말에 신랑 될 사람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왔다. 그렇게 국제결혼 정보업체를 통해서 남편을 처음 만났다. 나이 차이가 나와 많이 나 보였지만 나는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일주일 후에 소개 받은 사람이 베트남에 와서 가족들과 인사하고 바로 결혼 준비를 했다. 남편 될 사람이 집에 오자 아빠는 너무 놀랐고 엄마는 울었다. 국제결혼에 대해 부모님의 허락을 구하거나 의견을 묻지 않았다. 나 혼자 결정하고 각오하고 선택한 국제결혼이었다. 이미 결정한 나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준비되었다. 결혼식은 베트남 할머니 집에서 했다. 할머니와 어머니, 이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와서 직접 요리해주었다.

그렇게 내 나이 열여덟에 한국으로 시집왔다. 남편이 나이가 많고 말이 안 통하니 모든 것이 낯설었고 너무 무서웠다. 그때 나는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못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은 먼저 한국에 가고 나는 베트남 생활을 정리한 후 2주 후, 2003년 1월 중순 한

국에 왔다. 간단한 짐과 결혼 정보 업체에서 준 한국어-베트남어 사전 하나 챙겨서 말이다. 지금도 그 사전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 와서 남편의 집으로 갔다. 그곳은 소태역 근처였다. 지금은 거기도 많이 개발이 되었지만 당시에 시택은 산 중턱에 있는 집이었다. 처음 갔을 때가 1월이라 눈이 많이 쌓여서 나무며 집이며 다 하얗게 보였다. 거의 다 도착해서 시택에 들어가는데 어디론가 납치되는 느낌이 들어서 무서웠다. 그 순간 눈물이 났다. 나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한국말을 못해서 식구들이 말을 걸면 ‘안녕하세요’도 못하고 누구든 사람을 만나면 고개만 숙이며 인사를 했다. 시택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남동생 두 명과 함께 살았다. 남편의 바로 아래 동생은 미혼이었고 막내 동생은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었다. 그때 막내 동서가 한국말을 많이 가르쳐줬다. 막내 동서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 둘을 키우느라 직장에 다니지 않아서 항상 함께 지냈다. 밥 먹을 때마다 동서가 젓가락, 숟가락 단어부터 가르쳐주었다. 그렇게 나는 동서에게 한국말을 배웠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남녀관계도 전혀 모르던 나는 낯선 남자와 잠자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 아무리 남편이라 해도 말이다. 그때는 의사소통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낯설어서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매일 밤마다 울었다.

열아홉, 아이를 낳다

결혼한 지 1년 후에 나는 임신을 했다. 열아홉 살에 아이가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 임신 중에는 정말 힘들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에게 동서는 선생님이자 언니 같았다. 내 옆에서

임신 기간 동안 태교와 주의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출산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출산 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알려줬다. 처음에는 입덧 너무 심했다. 낫설고 물선 이국에서 임신을 했으니 오죽했을까. 임신 3개월 동안은 밤낮없이 입덧을 했다. 그때 내 몸무게는 39kg였다. 그때 나는 고향에서 먹던 과일 망고가 먹고 싶었다.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망고를 사려면 백화점에나 가야 살 수 있었다. 그때 망고 한 개 가격이 15,000원이라서 백화점까지 가서 망고 딱 한 개를 사왔다. 작은 도련님은 남편을 대신해 입덧이 심하고 한국말도 못하는 나를 데리고 이곳저곳 다녔다. 임신 중인 나는 마트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식재료를 골라서 직접 음식을 해 먹었다. 그렇게 해도 입덧이 너무 심해서 뭘 먹을 수가 없었다. 한 4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입덧이 잦아들어 음식을 좀 먹을 수 있었다. 김치는 너무 맵고 내게 익숙한 식재료를 사다가 요리해서 먹는데 생선, 새우, 꽃게 같은 식재료가 그나마 베트남에도 있으니 해산물을 자주 먹었다. 한국요리 중에 양념 갈비가 그나마 베트남 요리와 비슷했다. 남편이 집에 없을 때는 시동생들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사다줘서 먹었다. 먹을 수 있게 되니 살도 다시 붙었다. 작은 도련님이 나를 데리고 가면 주변 사람들은 남편이라고 오해하는 일이 많았다. 사람들은 남녀가 같이 다니니까 작은 도련님을 남편인 줄로 생각하는 것이 불편하고 싫었다. 그러면서도 작은 도련님에게 정말 감사했고 미안했다. 지금은 그 도련님도 결혼해서 아이가 둘인 아빠가 되었다.

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은 집에 거의 없었다. 집에는 일 년에 딱 두 번 추석과 설날 명절에만 왔다. 나는 그때만 남편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남편은 지방으로 다니며 도로 공사하는 일을 했다. 집에는 명절 같은 때나 와서 사흘 있다 가곤 했다. 핸드폰도 없고

집 전화기로 남편과 일주일에 한두 번 통화하는 것이 연락의 전부였다. 그러다 아이가 나올 것 같아서 남편에게 연락했다. 며칠 후에 나는 남편 없이 출산했다. 아들이 태어난 그 다음 날 남편이 와서 퇴원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흘 있다가 일하러 떠났다.

나는 출산 후 2년 동안 육아를 하면서 한국어를 익혔다. 인사할 정도로 말하고 먼저 밥, 그릇, 식사 관련해서 집안에서 쓰는 용어들 먼저 익히고 말할 수 있었다.

별거와 이혼

2년 동안 독박 육아를 하고 있던 중에 남편은 도로공사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와서 나에게 하는 말이 헤어지자는 것이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다. 남편은 내게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살아도 좋고 돈을 벌고 싶으면 직장도 알아봐 준다고 했다. 나는 이럴 거면 왜 결혼했냐고 물었다. 그때 남편의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원래 본인은 아이만 낳고 싶어서 결혼했다고 했다. 나와 결혼하기 전에 국제결혼업체에 미리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나 만나기 전에 세 번이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남편은 나에게 미리 이런 말을 하면 전과 같이 거절할 것이 뻔해서 그냥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야 진심을 말한다고 했다. 남편은 나에게 한국생활을 하며 직장을 다니고 돈을 모아 베트남 부모님도 도와주고 잘 살라고 했다. 아이에게는 양쪽 부모가 다 필요한데 이혼을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엄청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워야하니 한국에 살기로 마음먹고 한국 국적 취득도 하고 공장에 취업했다.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입국하고 2년

후에 바로 국적 취득이 가능했다. 아이도 있었기에 한국 국적 취득은 어렵지 않았다. 아들이 세 살이 되었을 때 따로 나가 살았다.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사이에 나는 하남공단에 취업해서 주야 근무를 하며 돈을 벌었다. 막내 동서네도 분가해서 양산동에 살았다. 그 뒤로 새벽에 양산동 막내 동서네 집에 아들을 맡기고 하남공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다시 아들을 데리고 집에 오고 그렇게 살았다. 나도 아이를 맡겼다가 다시 데려오는 일이 힘들고 아들에게도 못할 일이라서 주중에는 동서네 집에 아들을 맡기고 주말에만 아들과 함께 보냈다. 아들이 4살 때부터 중2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 나는 주중에는 동서에게 부탁했지만 이렇게라도 내가 아들을 키우는 것은 너무 당연했고 아들을 내가 돌보는 것이 나에게 필요했다. 아들이 없었으면 살 수 없었다. 남편은 없어도 되지만 아들이 없으면 못 이겨냈을 시간들이었다.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야 할 것 없이 12시간 넘게 근무했다. 아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일도 힘든지 모르고 했다. 항상 12시간 이상 회사에서 일하면서 주말에는 아들과 집에서 놀거나 택시 타고 함평 나비 축제에도 가고 패밀리랜드에도 자주 갔다. 하지만 아들은 왜 아빠 엄마가 따로 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원망했을 수도 있다. 나중에 아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알아듣게 말하면 이해해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면서도 아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전남편에게 계속 재결합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전남편은 나더러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재혼도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본인이 나이가 많고 가진 것이 없어서 혼자 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전남편이 나에게 미안해서 재결합을 거절했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전남편은 지금도 혼자 산다. 누구를 만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냥 혼자

편한 사람 같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집에 와서 아들을 만나고 가곤 한다.

아들의 사춘기와 학교생활

아들이 사춘기 때는 정말 힘들었다. 일을 해야 하기에 동서에게 주중에 아들을 부탁한 건데 내가 자기를 삼촌네 집에 버렸다고 오해해서인지 아들은 점점 삐뚤어졌다. 사춘기가 한창일 때는 아들의 학교 친구들은 아들에게 너네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라고 놀렸다고 한다. 그리고 참지 못한 아들은 친구가 자기를 괴롭힌다며 싸웠다. 싸움이 점점 과격해졌고 어느 날 아들은 얼굴을 심하게 다쳐서 왔다. 치료는 받았지만 상처가 깊었고 아직도 아들 얼굴에 흉터가 남아있다. 그때부터 학교에 일이 있으면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선생님들께도 상황을 이야기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부모로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힘들게 일하며 사는 것에 대해 후회는 없다. 공장을 다니면서 힘들면 더 나은 일을 찾아 다른 회사로 이직을 고민할지언정 일을 놓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대부분 플라스틱 사출 회사에서 일했고 십오 년 동안 사람도 만나지 않고 일만 했다. 힘들 때 일수록 목표를 세워서 이보다 더 나은 직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검정고시에 도전했다. 인터넷 강의로 수강신청을 하고 퇴근 후 인터넷에 접속해서 혼자 밤마다 공부했다. 아들이 중2 때 같이 살면서 시작한 검정고시 준비였고 계속 공부했다. 재작년에 다 끝나서 3년간 초, 중, 고 검정고시에 모두 합격했다. 내년에는 조선이공대 야간대학에 다닐 계획이다. 아들은 전남과학대 특수장비과에 수시로 합격해서 우리 모자는 함께 대학생이 될 것이다.

중학교 다닐 때 아들은 고등학교도 가지 않으려고 했다. 중학교 3학년 때도 거의 학교를 안 다녔다. 아들은 중학교 때 2학년 때부터 동서네서 돌아와서 나와 같이 살았다. 아들은 엄마가 검정고시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나는 아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도록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 아들에게 학교 다니며 다시 공부에 적응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빠 엄마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아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학 안 가면 직장도 못 구하고 직장 없으면 잘 살 수 없다고, 엄마를 보라고, 아침저녁으로 늦게까지 일하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 같이 공부하자고 설득했다. 나는 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이렇게 아들을 설득해서 고등학교도 가게 됐고 무사히 대학도 합격했다.

이직과 공부

올해까지 15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다. 2022년 5월에 공장 일을 그만두고 간호조무사 시험공부를 했다. 혼자 밤에 공부하고 낮에는 아르바이트 다니며 일을 했다. 6, 7, 8월 시험 준비를 하고 9월에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했다. 학원은 다니지 않고 인터넷 강의 접수해서 혼자 공부하고 실습 기간만 학원에 다녔다. 9월에 시험 봤는데 2점이 부족해서 간호조무사 시험에는 떨어졌다. 그래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쉽게 땀는데 요양보호사는 월급이 160만 원 정도라고 들었고 그 돈으로는 아들을 키우기 힘들어서 요양보호사로는 취업을 안했다. 간호조무사 시험에 떨어지고 청호나이스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일을 시작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루 10만원에서 12만

원도 벌 수 있다고 해서 이 일을 선택했다.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라 어려움도 있지만 공장에서 오래 일하며 한국에서 20년 살아 온 시간에 비하면 한국말을 못하는 편이다. 공장에서 일을 할 때는 말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했다. 이제는 한국 사람을 만나며 한국말도 더 잘하도록 배우고 사회생활도 하고 싶다. 이 회사 다니면서 보험 설계사 공부를 하고 있다. 다음 주말에도 보험회사에 교육을 받으러 서울에 간다. 지금 하는 일도 익히고 보험 공부도 하며 바쁘게 살고 있다. 정수기 교체를 위해 방문시간 기다리는 5분, 10분. 그 시간도 아까워서 책을 보며 보험 공부를 하고 있다. 내년이면 나도 아들도 대학 공부를 시작한다. 지금 하는 일도 하면서 틈틈이 보험 상품도 팔며 열심히 벌어야 둘 다 공부할 수 있다.

이주민센터 봉사활동

아들과 살게 되면서 2017년부터 주말마다 이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여행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와서 일을 하시다 아파서 오는 외국인들이 많다. 이런 외국인들을 위한 센터 하나 만들어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사소통의 문제로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특히 노동자에게는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하다. 몇 년 전에도 회사에서 6개월 동안이나 임금을 못 받은 분이 있었다. 그런 분들이 사장님께 월급 달라고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 나와 같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일하러 가면 아파도 병원도 가지 못하고 혼자 집에서 버티고 있는 경

우가 많다. 그들은 아프면 더 외롭다. 누군가 병원을 같이 가주고 의사에게 어떻게 아픈지 통역도 해주고 죽이라도 끓여다 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싶다. 나도 아플 때 엄청 힘들어 본 경험이 있기에 아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식당 알바도 병행하면서도 주말에 하루는 꼭 봉사 활동을 간다. 그렇게 몇 년을 계속했던 이유가 너무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말도 못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아서다. 남편과 헤어지고 따로 나와 살게 되면서 많이 힘들었다. 혼자서 집도 구하고 관련된 이사, 전기, 가스 등 이런저런 것을 혼자 다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입주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직접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가 입주 절차를 잘 모르는데 알려주라고 부탁했다. 그래도 다행히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은데 직접 찾아가서 반찬이라도 밥이라도 한번 해주고 싶다. 어려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서 그런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가보지 못해서 그런지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너무 안쓰럽다.

나는 한국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지금까지 아들을 키우며 살아올 수 있었다. 도움을 요청하면 늘 사람들이 도와줬다. 최근에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나를 진짜 동생처럼 생각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초등, 중등 검정고시 공부 혼자 했는데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좀 어려웠다. 그 선생님을 만나서 한국어도 수학도 그분에게 배웠다. 주말에는 어려운 단어들을 따로 물어보러 가서 배우고 주중에 집에서 혼자 매일 공부해서 합격했다. 합격은 모두 그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내 인생은 이제 시작

내년에는 낮에 일하며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야간으로 다닐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면 좋겠다. 노인들 혼자 사시는 거 보면 너무 짠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자격증도 미리 땀다.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그런지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 그간 일하기 바빠서 베트남에 가지 못했고 할머니 돌아가실 때 얼굴도 보지 못했다. 5, 6년 전에 아빠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심장 이식 수술을 급히 해야 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베트남에 가서 수술을 시켜드렸고 다행히도 이제는 많이 좋아지셨다. 엄마도 한때 뇌출혈로 몸이 많이 불편한 상황이었다. 말은 알아들으셨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계속 침을 맞고, 치료를 받으셔서 요즘은 괜찮아졌다. 공장 다니며 모은 돈으로 부모님 치료비를 내고 빚도 갚아드리고 새집도 지어드렸다. 처음에는 땅 먼저 사고 또 돈을 모아 집을 지어드렸다. 아프셨던 아빠도 6년 전에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으셨다. 이제 어느 정도 부모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드렸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어렸을 때 일하느라 공부하지 못한 만큼 지금이라도 공부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 밤낮없이 일해서 돈을 벌어야 했고 퇴근 후에도 쉬지 못하고 공부했다. 너무 힘들어서 한 번씩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포기하면 나중에 더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다.

2019년 가을에 여행 비자로 부모님이 한국에 왔다. 아빠가 크게 아팠던 경험이 있으시니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딸내미가 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을 초대

했다. 걱정하시지 않게 하려고 초대했는데 한국에 오신 아빠는 매일 우셨다. 부모님이 오셨으나 나는 매일 일하러 가야 했고 부모님의 상황은 좋아졌으나 내 삶은 바뀌지 않았기에 그렇게 우셨을 것이다. 부모님이 처음 한국에 오셨으니 나도 휴가 내고 같이 관광을 해야 했는데, 아침 6시 반에 나가고 밤 9시에 퇴근하는 내 모습만 봤기에 매일 눈물을 보이셨다. 2019년 말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돌아가셨다. 한국에서 20년 사는 동안 베트남에 딱 세 번 갔다 왔다. 한 번 다녀오면 돈이 많이 드니 사실 돈 생각해서도 안 가고 싶었다. 그저 부모님이 항상 건강하시기만 빌며 나는 내 할 일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러다가 올 10월에 이웃집 찰스 ‘외국인 명예 통장 후보자’ 편에 출연했다. 그때 방송에서 한국에 살며 경험한 이야기들을 말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흔히 경험하는 일로 한국 사람과 이주노동자 차별이 있다. 어려운 작업이나 열악한 작업 여건에서는 항상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하게 한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항의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못했다. 그날 집에 와서 사전을 찾아보며 내가 해야 할 말을 준비했다. 말을 잘 못하면 사장님께 저도 힘들다고 이렇게라도 말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어려운 일도 같이 하자고 하면서 나도 힘들다고 말했다. 때로는 손바닥 살 껍질이 다 벗겨진 것을 보여주며 나도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외국 사람들도 국적 상관없이 그냥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에 살며 너무 힘들 때가 많았다. 그럴 때 아들만 보고 살았다. 우리 아들이 아프지 않고 잘 자라줘서 너무 감사하다. 엇그제 네 살, 다섯 살 이었던 것 같은데 그 조그만 아기가 이렇게 컸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지금은 아들과는 친구처럼 대화하며 지낸다. 아들과 내가 함께 대학에 합격했고 새해에는 함께

대학에 간다. 서로 포기하지 말자고 응원해주며 사니까 너무 힘이 난다. 힘들 때 늘 이렇게 생각했다. 오늘 조금 더 힘내고 내일은 더 잘 할 수 있다. 지금도 아침에 출근하며 차에 앉아 시동 걸 때마다 다짐한다. 오늘 하루도 힘내자! 나는 잘할 수 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엄마는 계속 숨어다녔다

엄마가 떠나고

나도 한국으로

중국에 사는 아با

가정불화

엄마의 한국생활

진학과 진로를 결정

아르바이트를 하며

엄마가 행복했으면



엄마는 계속 숨어다녔다

나는 중국에서 태어났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기에 정작 중국 안에서 살 때는 내가 조선족이라는 걸 몰랐다. 중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나중에 중국의 여러 다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이라는 걸 알았다.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살던 곳은 시골이었다. 지금은 아파트도 생기고 많이 달라졌다. 길림성에 있는데 재개발이 되어서 이름도 다 변해버렸다.

어릴 때 엄마는 계속 숨어다녔다. 내가 물어보면 엄마는 조선족은 맞는데 중국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다. 나중에 내가 좀 자라자 엄마 고향이 북한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내가 어려서 북한에서 어떻게 왔는지는 나중에 알려준다고만 하셨다. 엄마 고향은 북한이고 아빠는 중국 조선족이고 나도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라고 알고 있다.

어릴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저녁때 자주 친척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서 나와 엄마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그때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그것이 마냥 재미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크고 보니 엄마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고 언제든 중국 공안이 찾아오면 엄마를 잡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내가 어리고 엄마가 없으면 안되는 나이라 친척분이 오토바이로 우리 모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줄도 몰랐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살던 동네는 조선족 동네라서 거의 우리말을 썼다. 학교는 조선족 학교인데 조선어 시간을 빼고 거의 다 중국어로 수업했다. 그래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썼다.

초등학교 때 만난 한 친구는 가정 상황이 딱했다. 친구 아빠가

많이 아프셨고 직장도 없었고 그 친구는 아빠하고만 살았다. 그 친구 엄마도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공안에 잡혀간 상황이었다. 그 때는 탈북민이 잡혀가도 돈을 주면 풀려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친구의 집은 형편이 안돼서 친구 엄마는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엄마도 한 번 공안에 잡혀갔었다고 했다. 내가 엄마 배 안에 있을 때 공안에 잡혀갔는데 중국 돈으로 오만 원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 당시 그 돈이면 동네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풀려 나오지 못하면 무조건 북송된다고 했다. 다행히 할머니 쪽에 친척이 힘이 있는 집안이어서 아빠가 현금을 경찰서에 가져가서 엄마를 데려올 수 있었다. 그 당시 엄마가 잡혀갔을 때 경찰서에 있었던 상황을 말해줬는데 창문 밑에 수갑을 채워 걸어놨다고 했다. 그때 엄마는 임신부였는데 의자도 없이 맨바닥에 앉아 있었다고 했다. 그런 상태로 하염없이 아버지가 오기만 기다렸다고 했다. 나중에 듣기로는 엄마 상황을 아는 동네 사람이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엄마는 늘 불안 속에서 중국 생활을 해야 했었다.

엄마가 떠나고

엄마의 지인들 중에 한국에 간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엄마도 가고 싶어했다. 아빠는 가지 말라고 했다. 내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엄마랑 아빠가 나이 차이가 많아서 엄마가 한국에 간 후에는 나와 아빠를 잇을 것 같은 불안감도 컸던 것이다. 아빠의 반대에 엄마의 시위가 시작됐다. 엄마는 제대로 살림도 안 하고 계속 술만 먹고 지냈다. 결국 아빠는 모아놓은 돈을 엄마한테 줬고 엄마를 믿고 한국으로 가도록 도왔다. 엄마는 불안한 중국에서의 삶이 아닌, 사람

답게 살고 싶어서 한국에 갔다. 그때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곁에 없었다. 아빠는 매일 농사일을 해야 했다. 나를 혼자 키울 수 없어서 아빠는 나를 기숙학교에 보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주말에만 집에 올 수 있었다. 기숙사에서 첫날 아침에 일어나니 이불이 다 젖어 있었다. 그때는 어린 나이지만 내 실수가 너무 창피해서 물을 쏟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이불 빨래는 내가 직접 해야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이 혼자 씻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신발도 옷도 내가 빨아야 했다. 머리를 혼자 제대로 감지 못해서 이까지 생겼던 상황이었다. 어릴 때 생각하면 옷은 색이 닳고 떨어질 정도였고 신발도 제대로 신발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을 신고 다녔다. 그렇게 나는 고등학교까지 기숙사 생활을 계속했다.

한국에 간 엄마에게 서너 번 연락이 왔는데 그 후 언젠가부터 엄마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 주변의 만류에도 엄마를 믿고 한국으로 보낸 아빠였다. 그런 아빠가 말씀하시길 엄마가 한국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했다. 나중에 엄마를 만나서 엄마가 떠난 후 나는 너무 힘들었다고 따지기도 하고 왜 떠났냐고 묻기도 많이 물었다. 키우지 못할 거면 왜 낳았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원망스러운 나날이었다. 엄마가 집을 떠날 때 나에게서 일하러 간다며 한 달 뒤에 온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엄마는 나에게 한국에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나를 버리고 간 엄마이기에 너무 미웠다.

아이에게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아빠는 새엄마를 찾았다. 엄마가 재혼하고 아빠도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만 엄마의 거짓말에 충격이 너무 컸는지 새엄마를 믿지 못했다. 엄마가 떠나고 아빠도 나처럼 많이 외로웠고 힘들었을 것이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우리 집 상황을 잘 몰랐다. 그런데 학부모 회의를 할 때마다 새엄마가 바뀌어 있었다. 친구들은 또 새엄마가 바뀐 거냐며 물었다. 나는 새엄마가 매번 바뀌는 것이 너무 창피했다. 주말에 집에 가면 모르는 아줌마가 있었다. 그래도 주말에만 가니까 새엄마는 나에게 잘해줬다. 하지만 새엄마는 아빠에게 계속 물질적인 것을 요구했다. 아빠는 새엄마와 더는 함께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헤어졌다.

나도 한국으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즈음에 엄마를 보러 한국에 처음 오게 되었다. 엄마가 나에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와서 한 달만 지내고 가라고 부탁했다. 아빠는 내게 가지 말라고 했다. 아빠는 내가 한국에 가면 엄마가 나를 보내지 않을까 봐 두려웠다고 내게 말했다. 그런데 더 생각하시더니 아빠랑은 인연이 끊어진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게는 엄마니까 한번 다녀오라고 하셨다. 부인이 아닌 딸의 엄마이기에 한번 더 믿기로 하신 후 내린 결단이었다.

엄마는 한국에서 재혼한 사람과 같이 살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분을 그냥 아저씨라고 불렀다. 나는 그 아저씨도 그 아저씨와 재혼한 엄마도 마음에 안 들었다. 재혼한 엄마의 집은 불편했다. 내가 한국에 와있어도 엄마는 계속 일을 나가고 주말에만 함께 있었다. 나는 거의 한 달 동안 컴퓨터만 했다. 엄마는 운전을 못하셨고, 엄마랑 같이 사는 분도 나랑 오래 볼 사이가 아니었기에 그다지 나에게 잘 대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다.

나의 사춘기는 반항과 방황의 시기였다. 그래서 성적도 안정적이

지 못했다. 때론 내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의심을 살 정도였고 때로는 바닥을 모르고 쪽쪽 떨어질 때도 있었다. 나는 이과 교과를 좋아했지만 자신이 없어서 문과를 선택했다. 그 당시 나의 성적을 보면 진학과 진로에 대해 답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중국에서는 하루 4시간만 자고 공부했었다. 그렇게 공부를 해도 이과를 다시 선택해서 공부할 용기도 없었고, 단 한 번 잘못된 선택에 평생 후회하기도 싫었다. 나는 담임 선생님과 계속 상담을 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다.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였기에 공부는커녕 솔직히 정말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시골 변두리에서 자랐고 어려서 아프면 그냥 몸이 아픈 것이지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춘기 시절의 나는 우울증이 심했던 것 같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애들이랑 싸움도 많이 하고 사고도 쳤다. 사고를 쳐서 학교에서는 부모를 불러야 하는데 아빠를 부르기 싫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아빠가 창피했던 것이다. 학부모 회의에 우리집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고 공부도 잘되지 않아서 다시 생각했다. 엄마 말대로 한국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장을 받아서 중국에 다시 들어가서 취업을하기로 결정했다. 아빠에게 나의 진로 계획을 말했다. 아빠는 너의 선택이 그렇다면 가라고 했다. 한국에 와서도 중국 국적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그리고 한국 국적 취득은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저런 절차를 밟으면서 영주권은 안되고 한국 국적만 된다고 했다. 한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해 주지만 중국은 이중 국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알게 됐다. 한국 국적을 갖는 순간 중국 국적은 자동 폐기되기에 아빠랑 이 문제로 통화했는데 아빠는 본인 생각은 하지 말고 내 앞길을 생각해서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셨다.

중국에 사는 아빠

몇 해 전에 동네에 정부 사람들이 내려와서 아빠 땅을 나라에서 수용해 가겠다고 했단다. 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는데 금액이 말도 안 되게 적었다. 동네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며 강제로 땅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아빠 빼고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있는 나는 너무 불안했다. 아빠가 걱정이 돼서 계속 인터넷을 뒤졌다. 행정 명령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라에서 수용하는 토지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보니 동네 땅은 명단에 없었다. 하지만 토지 수용측은 분명 허가를 받았고 메일로 와서 못 보여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동네에서 힘 좀 있는 분이 함께 다니며 온 동네 사람들에게 사인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했고 혼자 땅을 지킬 아빠가 너무 걱정돼서 그냥 사인하시라고 했다. 예전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철거하는 모습을 봐서 너무 무서웠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셨고 작게 농사를 지으시며 돼지, 개 등 가축을 돌보며 좋은 새엄마와 살고 있다.

엄마의 한국 생활

한국에 살게 된 엄마 주변에는 새터민 이모들이 많았다. 이모들은 잘살고 있는데 엄마만 여전히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쓰러웠다. 목숨 걸고 한국에 왔으니 다른 이모들처럼 자기 인생을 살기를 빌었는데 왜 재혼을 해서 남을 보살피주며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엄마의 남편, 엄마와 나 세 식구 한집에 살 때는 너무 우울했다. 그분은 남편으로서 엄마를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이 다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다. 그분은 좋지 않은 습관들이 많았다. 술을 드시고 왔던 어느 날, 엄마가 안좋은 습관이니 딸을 봐서 고치면 안되겠냐고 말했다. 그분은 내 딸도 아닌데 왜 내가 내 집에서 하고 싶은대로 못하고 살아야 하냐고 말했다. 엄마와 아저씨와 함께 살면서 나는 너무 우울해서 약도 먹었다. 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니 처음엔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했다가 엄마가 보기에다 내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던지 원하면 나가라고 했다. 하지만 독립할 때 엄마는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독립할 때 아빠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진학과 진로를 결정

내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엄마가 아는 수녀님과 중도입국청 소년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찾아보셨다. 대안 학교는 작은 학교였지만 한국문화와 국어를 잘 배울 수 있었다.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나이에 맞게 대학 진학을 할 수 있게 학업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나와 같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만나고 친구도 사귄 수 있었다. 교장선생님께서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한 경우 일반학교와 연락하며 일반학교로의 진학을 도왔다. 대안학교에서 검정고시 뿐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다른 선생님들 덕분에 학업과 진로를 찾고 대학진학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일자리 체험도 하게 되었다. 나의 경우는 요식업에 관심이 생겼고 더 배우고 싶어서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하나센터를 통해 가끔 장학금도 지원받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 입학 후에 좋은 성적을 받아서 교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인생 최초의 아르바이트는 졸업한 대안학교에서 하게 되었다. 청년인턴으로 내가 졸업한 대안학교에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했다. 내가 다녀봐서 잘 알았고 누구보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 줄 알았기에 내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업체와 연결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다. 다른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었지만 사업장에서 나를 챙겨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하게 됐다. 식당이었는데 사장님이 좋은 분은 아니었다. 약속한 것보다 월급을 덜 줄 방법을 고민하는 사장님이었고 일은 최대한 더 시키는 분이었다. 하지만 사장님은 북한 이탈주민이나 중국에서 온 나와 같은 사람을 고용해 준다는 것만으로 본인이 좋은 일 한다는 생각을 하셨고 본인은 손해를 감수하며 이렇게 이주민들을 고용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한번은 고객이 전화로 주문하며 불만을 표하니깐 어떤 직원의 무슨 잘못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중국에서 온 사람이라서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생긴 일이라고 고객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런 일을 겪고도 내 생각을 다 말할 수 없어서 많이 힘들었다. 소통의 문제도 있지만 말을 잘 한다고 해도 들어주실 것 같은

분은 아니었다. 이런 경험을 해보니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거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게 어려운 일이다.

대학에 가고 학업과 실습 등 내 일이 바빠서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못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많은 차별을 겪지만 일을 하며 겪는 차별은 더 억울한 측면이 있다. 먼저 사장님과 평등한 관계가 아니고 할 말을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친구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 많이 듣는다. 당구장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해서도 한국말이 어설퍼서 그랬나 무시하는 것이 느껴졌다고 한다. 그러다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게 됐고 한국 국적인 것을 확인하고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말도 들었다. 사실 더 안타까운 경우는 본인이 이주민이기에 차별을 당하는 와중에도 그것이 차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너무 차별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받아들인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에게 인권이 침해됐을 때 대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해마다는 아니더라도 2, 3년에 한번 이런 인권 취약계층에게 기본적인 교육이라도 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요즘은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고맙게도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진짜 고생했겠다고 하면서 여기서 진짜 잘 살라고 응원을 해준다. 중국에서도 이주민으로 살며 늘 신고를 피해 다녀야 했던 엄마의

삶을 생각한다. 중국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일상적 차별도 심했다. 엄마가 중국에 살 때 동네에 아는 탈북 이모와 시내에 양꼬치를 먹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동네 할머니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못사는 나라에서 와서 고기를 사먹는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엄마는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행복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직도 신고를 피해 다니며 위태롭게 살았었다. 동시에 아버지는 너무 효자셨기에 할머니의 시집살이에 방패가 되어주시지 못했다. 엄마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왔고 중국도 안식처가 될 수 없어서 다른 나라를 거쳐 어렵게 한국에 왔다. 엄마는 한국에서도 차별을 많이 느낀다고 하신다. 한번은 캐나다 이주도 고민하셨다. 나는 한국생활에 잘 적응해가고 있다. 나보다 엄마의 한국생활이 더 걱정이다. 힘들게 한국에 온 엄마가 이제는 여기에서 잘 정착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한국이 엄마의 종착역이 되어 정말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어릴 때 부터 누나 옷이 그렇게 좋았다

어릴 때부터 누나 옷이 그렇게 좋았다

졸업만을 기다리던 고등학생

대학 진학과 광주 생활

억척받는 위치에서 사는 삶이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어릴 때, 누나 옷이 그렇게 좋았다.

내 위로 누나 둘이 있다. 어릴 때부터 둘째 누나 옷을 그렇게 입고 싶어 했고 내 옷보다 더 좋아했다. 장난감 로봇이 아니라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이 좋았고 남자(지정성별)인 친구들과하고는 친해지기가 힘들었다. 남자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 웬지 모르게 남자 아이들의 폭력적인 성향이 싫어서 늘 여자 친구들과하고만 놀았던 것 같다.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놀리고 괴롭히는 감정이 편하지 않았다. 행복이나 기쁨은 잘 드러내는데 부정적인 감정은 잘 드러내지 못하고 누가 싫다는 말도 잘 못했다. 그렇게 착한 어린이로서 ‘착해야 돼’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던 순한 아이로, 선생님이 하라는 것 또한 당연히 다 해야 하는 일로 알고 잘 따르는 순종적인 학생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뭔가 특별하지 않은데 특별해지고 싶은 생각을 막연히 품고 있기도 했던 것 같다.

유년 시절은 교우 관계를 맺어가며 겪는 여러 경험이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내가 다닌 초등학교, 중학교는 규모가 작아서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다 알고 지내며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 20여 명 정도의 한 반이 한 학년의 전부인 너무 작은 초등학교였고 1학년 때 봤던 친구가 그대로 2학년, 3학년 계속 같은 친구들이어서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 같다. 누구에게 먼저 말 걸기도 쉽지 않은 성격에 새로운 친구를 사귄 기회도 적었고 방과 후 수업도 악기 연주나 그림 수업만 들으며 혼자만의 놀이에 집중하다 보니 관계를 맺는 것에서의 즐거움이나 갈등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졸업만을 기다리던 고등학생

중학교 시절엔 여자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장에 관심이 생겼다. 그런 나를 이해해 주고 인정해줬던 여자 친구들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내겐 일상이었고 그렇게 화장은 중학교 때부터 자연스러운 아침 루틴이었다. 그러다 중학교 중후반부터 내가 남자를 좋아하나 이런 고민이 시작됐다. 또래가 아니라 한 선생님을 좀 많이 따르고 좋아했는데 아마도 그때를 시작으로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던 것 같다.

중학교 때는 애들이 어렸고 놀리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이 놀림인지 아닌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저럭 잘 지냈었다. 소규모의 초중고에 비해 고등학교는 900명이 다니는 보통의 큰 학교였는데 1학년 학기 초,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는 것처럼 다른 반 학생들이 우리 반 창문에 누군가를 무언가를 보러왔다. 모르는 애들이 우리 반 창문으로 와서 누군가를 보는데 그게 나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누구도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학기가 3월에 시작돼서 4월 5월까지 거의 세 달 정도 놀림거리였는데 나의 행동이나 목소리가 여성스러워서 놀림의 대상이 됐던 것 같다. 지금까지도 느낌이 생생한 그 놀림은 드러내놓고 이뤄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게 나를 짓누르며 나는 너무도 다른 존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런 이방인 같은 존재여서인지 고등학교 때는 학창 시절의 즐거운 기억이 하나도 없다. 사춘기 남학생들은 왜 그렇게 성적인 장난을 일상적으로 하고 욕은 기본으로 입에 달고 사는지 그들과 어울리기가 너무 힘들었다. 학교 화장실을 갈 때는 사람이 없는 화장실을 찾아 멀리 다니기도 하고 체육 시간엔 혼자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그것이 편했다. 점점 나를 보는 타인의 시선이 싫어

서 급식실도 가지 않았고 점심을 먹지 않았다.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거른 것이 고등학교 때는 점심을 아예 안 먹는 게 편했고 아직도 점심을 안 먹어도 불편하지 않다.

점심시간이 되면 적막하고 조용한 교실에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교실에 있지 않았다. 그때부터 산책하는 게 좋았던 것 같다. 학교 주변으로 산책을 오가며 산책을 즐겼다. 내가 점심을 안 먹는다는 것을 아는 친구는 내가 적응을 못하는 것 같다거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마치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학여행도 가기 싫어 가지 않았는데 대신 등교를 해야 해서 혼자 학교에 나가야만 했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지니 나도 학교와 친구들에게 정을 두지 못했던 것이다. 친하다고 여겼던 중학교 친구들도 고등학교에 가니 멀어져 갔고 아직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만나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다.

특히 아픈 기억 속에는 교우 관계만이 아닌 한 선생님이 있다. 고3 어느 날 아침에 한 친구랑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하는데 학교 교생으로 오신 체육 선생님이 나를 보자마자 “남자가 화장을 하네, 밥맛없어.”라고 말했다. 너무 당황했지만 일단 선생님이시니 화장을 지우겠다 말하고 등교를 했다. 교실에 와서 친구랑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화가 난 상태로 교실로 올라와서 “교무실로 오라고 했지?” - 분명 그런 말은 없었다. 선생님은 입술 화장을 지우라는 말을 하고 다시 “밥맛 없네”라고 말하고 갔다. 나는 담임선생님께 이런 상황을 말했는데 담임선생님께서서는 화가 나서서 그 선생님에게 그러지 말라고 훈계를 하신 것 같았다. 그 교생선생님도 그런 일을 겪으면 그만할 법도 한데 더 심하게 나를 괴롭혔다. 어딘가에서 마주치는 일이 있거나 야외에서 친구들과하고 얘기하고 있거나 복도에서 마주쳐도 위협적으로 대했다. 지금도 그때

그 선생님의 얼굴과 눈빛은 생생하게 박제되어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은 항상 나를 챙겨주셨다. 성정체성 고민도 들어주셨고 그런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다. 담임선생님과 남다른 인연이다 싶은 것이, 그 선생님이 둘째 누나의 담임이었고 해가 바뀌면서 우리 고등학교로 오시게 되어 그때 우리 반 담임이 되셨던 것이다. 그것 때문인지 좀 더 나를 챙겨주셨던 것 같다. 이런 좋은 담임선생님을 만난 것 외에는 고등학교의 기억은 그다지 좋지 않다. 매일 내가 왜 학교를 가야하나 하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심지어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고, 세상이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시절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뿐이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유일한 나의 꿈은 졸업이었다.

아마 분명히 고등학교 900명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였을 것이다. 그 당시는 커밍아웃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게이라고 말한들 그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을까 싶기도 하다. 어차피 그럴 것이라면 커뮤니티를 통해 성소수자 친구들을 찾아내고 모임을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퀴어프렌들리한 친구들도 많았고 그 친구들과 뭔가 했으면 다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그 시절엔 그런 생각을 하기엔 나도 미숙하고 정보도 환경도 온통 어두운 터널 속이었던 것 같다. 성정체성 혼란이 있었을 때 자료를 얻을 곳은 인터넷밖에 없었지만 인터넷 검색 그 자체만으로도 무서웠던 시기였으니 말이다. 인구 15만의 도시에 사는데 혹시 드러나면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학교에서도 더 힘들어질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고민은 혼자만 생각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한테 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는 내가 여자랑 아직 연애를 안 해봐

서 남자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의 솔직함이 결국 벽을 만들고만 썸이었다. 그 이후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어떤 친구한테도 고민을 말하지 못했다.

누군가에게 커밍아웃 할 때는 전제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사람에게 대한 신뢰는 기본이고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해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느껴야 가능하다. 가족들은 몰랐던 것인지 아는 척을 안 한 것인지 모르겠다. 성인이 되어 둘째 누나에게 게이라고 하니 누나는 담담하게 내가 독특한 사람인지는 알았다고 말했다. 엄마에게도 물었다.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엄마는 모르셨냐고. 엄마는 그냥 내가 여자처럼 보이고 싫어하는 줄 알았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간섭하지 않았다고 하셨다. 그나마 가족들은 날 이해하기에 나는 운이 좋은 편이다. 날 이해해 주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둘째 누나가 이번 5월에 결혼했는데 매형과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며 누나네 부부가 사는 춘천에 가서 보기도 한다. 매형은 누나에게나 나에게도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해 묻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배우자의 동생일 뿐 그 어떠한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서로 일상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그 일상적인 인사가 나도 고맙고 따뜻했다.

대학 진학과 광주 생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진학을 고민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은 패션 디자이너였고 의상 디자인을 배우고 싶어서 관련 전문대학에 갔는데 교수님은 계속 자격증 따서 취업을 준비하는 방법만 얘기했다. 그런 말을 듣는 동안 내가 이 대학을 왜 왔나 하는 생각만 들

었다. 그 학교를 나와서 뭔가를 배우러 다시 대학교에 가면 프랑수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불문과에 지원했다. 사실 광주에 연고도 없이 캠퍼스가 예뻐서 조선대학교를 선택했는데 덜컥 합격한 것이다. 보통 지방의 성소수자들은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한다. 본인이 드러나도 지역사회보다 덜 위협하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에게 광주는 그 어떤 연고도 없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자유로웠다.

조선대학교에 입학 후 학과 이외의 첫 인간관계는 정당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 심상정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노동자 목조르는 장관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자후 영상을 보고 정의당에 입당하게 됐다. 약자의 권익을 위해 권력에 큰 목소리를 내는 모습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주고 싶어서였다. 입당 후 비슷한 또래의 당시 청년위원장 김다정의 활동 권유로 좀 더 적극적인 정당 활동을 하게 됐다. 광주에서 모두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커밍아웃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

오월의 숲 김상호 선생님도 ‘네가 이렇게 커밍아웃해서 우리가 너의 존재를 알게 됐고 우리가 새롭게 세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렸다’며 너무 반갑고 좋다고 말해주니 이게 나의 족쇄가 아닌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 정체성을 드러내고 활동할 수 있었다. 성소수자 관련 자리나 퀴어 문화 축제, 성소수자 관련 토론회 등 뭐든 맡아 하게 되었다. 그러다 청년유니온에서의 방문 요청으로 인연이 되어 2017년 드림 청년 1기로 청년유니온 활동을 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에 성소수자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수락했다.

그렇게 성소수자위원회 활동을 하던 중 혐오세력에게 내 정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때부터 전화로도 메시지로도 협박과 함께 자

살하라는 막말을 들어야 했다. 게다가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도 게이 어플로 누군가가 협박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냈다. 그 사람도 게이 당사자로 나는 성소수자의 수치니까 자살하라고. 외부의 혐오와는 다른 차원의 공격이었다. 이 외에도 커뮤니티 안에서는 갖가지 문제들이 생겼고 생각지도 못했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이 넘쳐났다.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일부의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내부의 갈등이 심화됐다.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글을 썼다. 사회에서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이 모여 우리끼리 모임을 만들고 이런 네트워크도 만들고 어렵게 활동을 하는데 이 안에서조차 누군가를 차별하는 게 말이 되나 이걸 아니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한두 달 뒤에 알았다. 나에게 자살하라고 메시지 보냈던 사람이 누구인지. 일련의 과정은 안타까움의 반복이었고 해답을 찾기는 힘들었다.

억압받는 위치에서 사는 삶이 있다

계속 억압받는 위치에서 사는 삶이 있다. 장애인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이 그들이고 그들을 사람들은 편견이 담긴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들 중 하나인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계속 차별 당했고 그래서 당사자들이 모인 동아리를 만들어 인권 활동을 했던 이유는 그러한 차별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살기 위함이었다. 그 안에서조차 혐오 차별 발언이 있다는 사실이 슬프고 씁쓸하다. 벽을 뚫고 나아가 새 벽을 만나는 일의 연속. 그러한 벽은 성소수자 안에서도 권력의 우위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남성은 사회에서 권력자의 위치에 있을 확률이 높는데 게이 문화 속에서도 그것이 문제로 드

러났다. 우리 안에서 남성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들은 과연 없는가? 왜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조차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구분하려고 하고 왜 더 전형적인 남성이 되려고 하는가? 일부 게이들이 계속해서 더 선명하게 성별 이분법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반성의 문제 제기가 필요했다.

내가 게이인가 트랜스젠더인가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누나 옷을 더 좋아했고 인형 놀이를 좋아했던 아이로 당시에는 잘 모르니까 여성처럼 보이는 게 좋았을 뿐인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든다. 여성이고 남성이고 그 구분이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가? 본래 하이힐을 먼저 신은 것은 남성이었고 지금은 여성의 전유물이 되었는데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내가 꾸미는 것은 여성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표현하고 싶은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그게 화장이든 의상이든 나는 나를 나답게 표현할 뿐이다.

사람들에게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다 나열해서 가르칠 수 없고 가르쳐야 하는 부분도 아니다. 그런 다양한 성정체성을 수용할지 말지는 개인들의 판단 문제이다. 나는 이러한 성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지 모두가 학습할 필요는 없다. 한 번 씩은 들어보면 좋겠지만 그 모든 영역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활동가들조차도 쫓아가기 어렵고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 일례로 대부분의 성소수자 용어는 서양 문화에 그 어원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모두가 알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기후 위기 시대에 모두가 기후 위기 지식을 완벽히 아는 것보다는 실천 가능한 개인의 작은 행동이 중요한 것처럼 그 심각함을 깨닫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퀴어 문화 축제에 갔을 때 누군가 나를 향해 “너희 엄마가 너

이러는 거 아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장혜영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했을 때는 혐오 표현이 심한 전화도 많이 왔다. 그러한 전화 중 어느 기독교인과의 통화에서는 ‘선생님이 살아가면서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 ‘만약에 기독교 차별법 제정을 통해 기독교인을 차별하면 어떤 느낌이겠는지’ 그래도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로 몰리고 박해받았던 역사가 있었고 순교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가장 큰 세력이 되었다는 것은 참 모순된 모습이다. 그렇게 여성, 노인,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과 같이 차별받는 집단에 대해서 한 30분 1시간 통화하며 화내지 않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은근히 잘 소통되기도 한다. 목사님의 잘못된 설명을 지적하면 그렇다고 인정하시기도 한다. 물론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하여 완전한 인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 반대의 기운이 조금 빠지기만을 바란다.

성소수자들이 벼랑 끝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면 ‘나’라는 활동가 프랑은 그나마 그 벼랑 아래 완충지와 같은 공간이 더 남아 있는 것 같다. 왜냐면 활동가이기에 넘어져도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주변의 활동가들이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직접적으로 혐오한다 해도 방어해 줄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속에서 그들의 삶은 얼마나 피곤하고 외로울지 상상이 안 간다. 사람들은 말한다. 모두가 커밍아웃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커밍아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다. 하든 말든 그것은 그 개인의 선택이다. 사회는 어떠한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할 근본적인 문제는 왜 커밍아웃을 못하는 사회이냐는 것이다. 이미 커밍아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라면 커밍아웃은 고민거리도 되지 않는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

는 상황이라 안타깝다.

가끔 강의를 나가면 대기실 안에 있을 때 와서 묻는 분들이 있다. 본인이 성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말을 해야 될까요? 학교에 해야 될까요? 라고 절박하게 말해도 나는 말하지 말라고 한다. 솔직히 말해도 되는 사회라면 이미 고민없이 커밍아웃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거나 이제 막 청년이 된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기에 지지받고 싶어서 커밍아웃하고 싶겠지만 한 번은 참으라고 권한다. 왜냐면 청소년 시기에 나의 부모가 차별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행이지만,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상처받고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잔인하고 어렵지만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고 말한다.

내가 그들을 지켜주겠다는 말을 할 수 없다. 덧붙여 항상 하는 말이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 선택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커밍아웃하고 실패라고 느껴져도 무너지지 말라고 한다.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수용의 폭이 넓지 못한 문제이지 너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커밍아웃을 몇 번 실패하다 보면 존재를 부정당했다는 생각에 아예 마음을 닫는 경우도 있다. 차별과 혐오의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부정당했다’라는 생각에 매몰되어 다른 문제에 부딪치기가 겁나 결국 포기한다. 하지만 어딘가에 당신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없을 지라도 당신이 정말 안전한 상태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커밍아웃을 하라고 말한다. 정말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혐오의 대상으로 차별당하고 공격받으면 절대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다.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실제 사례가 있었고 특정 지역을 넘어 전 사회적으로 성소수자 혐오가 퍼졌고 전국이 난리였다. 누군가의 잘못은 있었지만 한 개인이나 집단이 소수자인 경우 더욱 큰 비난과 집단에 대한 혐오가 시작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개인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차별 금지법의 필요한 이유이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법과 제도가 부족하다.

광주시에는 인권 헌장이 있다. 광주 시민이 모여서 만든 것이고 시민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한다는 내용과 성적지향과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 또한 언급되어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정책과 이행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아직 그 실행은 미흡하다. 여러 현황과 실태 조사 속 인권 지표에는 성소수자가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정적 문제들의 개선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지만 국가 차원의 문제라서 어려움이 있다면 인권 도시라고 자칭하는 광주가 앞장서서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성소수자 시민도 함께 살아가는 광주라고 대대적으로 현수막이라도 걸면 좋겠다.

5.18의 상징적 인물, 합수 윤한봉 선생님의 배우자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시며 윤한봉 선생님의 정신을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누구보다 먼저 주장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한 광주 정신을 계승해 성소수자들의 인권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성소수자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욕구에 대해 살피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운동이 활발하기 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는 애 낳고 양육하는 존재로만 여겨졌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권한과 인권을 가진 주체적 측면에서 바라본 적이 없다. 또한 장애인들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여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여성 인

권, 장애인 인권은 시대의 상식이 되었다. 그렇게 인권의 주체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변해 왔듯이 성소주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이 시대에 맞게 모두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

힘들어도 한국을 떠날까 고민한 적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데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 싶은 때가 있다. 어제 만났던 사람이, 엇그제 며칠 전에 만났던 사람이 오늘의 삶을 정리하고 멀리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고민하게 된다. 그가 성소수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지만 활동하다 보면 누군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다. 그때가 가장 힘들고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든다. 만약에 그가 한국이 아니었다면, 성소수자의 인권이 지켜지는 나라였다면 안 그러지 않았을까? ‘성소수자 유명인이 죽었다.’ ‘자살했다.’ 혹은 ‘자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이 죽었다.’ 이런 뉴스는 반짝 이슈가 되어 잠깐의 추모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오래 기억해 주거나 기리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에 한국 사회의 퀴어 운동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사회는 과연 그 사람을 매년 기리는 장례를 준비할까? 그런데 유명인이 아닌 성소수자의 경우엔 그 죽음과 이 유조차 모른다. 오히려 드러내지 않는다. 그게 슬프다.

커밍아웃을 한 후, 나의 인생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잃은 만큼 다시 얻은 사람들과 지금의 주체적인 나이다. 만약 드러내지 않은 게이였다면 정말 내 안에 진짜 나를 가둬두고 나 또한 게이를 비난했을 수도 있다. 게이 커뮤니티에 조용히 살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인데 퀴어 퍼레이드 때문에 시끄럽게 논란을 만들고 우리 단체도 욕먹는다며 원망을 표현했을 수도 있다. 그랬다면 평생 음지의 고립 속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의 목소리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성정체성을 받아들인 후, 매년 아주 미약하게나마 소수자들

을 인식하는 지표들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달라졌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건 매체에서도 성소수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고 있으며 엘라이들도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누구가는 사회가 왜 빨리 변하지 않냐 질문한다. 누군가는 역사의 변화는 한 순간 아니냐 질문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작은 변화들이 모이고 모여 큰 변화로 이끈다고 생각한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 정치인도 등장해서 우리를 대변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당신이 성소수자라 해서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니 혐오의 말에 상처 받지도, 아파하지도 마라.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당신이다. -

첫사랑. 그리고 커밍아웃

유년 시절 가족이자 벗이었던 책

첫사랑 그리고 커밍아웃

동아리 결성과 연대

두 번째 커밍아웃과 노조 정관

‘천상홍연 프로젝트’와 자본



유년 시절 가족이자 벗이었던 책

어렸을 때, 좋았던 기억은 대부분 책을 읽었던 시간들이다. 하루 안에 다 못 읽을 정도의 두꺼운 소설들도 좋아했다. 학교 도서관이나 집 앞 도서관도 많이 다녔고 백일장에 나가 상을 받았던 기억도 난다. 혼자 놀면서 책을 엄청 많이 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집에서 딱히 누가 놀아주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학원에 보낼 여유도 없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시는 분이었고 주로 어머니가 돈을 벌었다.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쓰라고 했을 때는 항상 난감했던 기억만 난다. 아버지는 주식 장을 보느라 종일 컴퓨터만 하시거나 게임을 하셨다. 컴퓨터가 꺼진 적이 없었고 아버지의 컴퓨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물건이었다. 어머니는 생계부양자로 마트 일을 하시면서 대학을 한 번 더 가서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셨고 지금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계신다.

가정 경제를 위한 역할 뿐 아니라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더 부족했던 부분은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 들은 말은 주로 이런 말이다. ‘너는 머리가 모자라고 내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할 애다.’, ‘내가 버리면 너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더 어린 여동생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아버지의 이런 가스라이팅은 어머니한테 제일 심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고 내가 고등학교 때 두분의 별거가 시작됐고 대학 다닐 때 부모님은 이혼하셨다. 당연히 나와 여동생은 어머니와 살았고 지금은 분가해서 나와 동생은 자취를 한다.

아버지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할아버지가 선생님 이셨지만 이분은 부인과 자식들을 함부로 대했고 그게 아버지한테

아마 대물림이 됐을 거라고 짐작한다. 나는 그래서 조부모님들에 대해서는 별로 따뜻한 기억이 없다. 친구들과 대화 중에 할머니랑 친하다는 말을 들으면 신기했다. 외가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해서 모든 지원을 아들 둘한테 집중하셨다. 그래서 어머니가 힘들게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인지라 외가나 친가 등 친척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좋은 기억은 없다.

그래도 내 옆에는 책이 있었다. 나는 정말 책이 좋았다. 국어 부장 같은 것도 도맡아 하고 학교에서 주는 책벌레 상은 늘 내가 독차지하는 학창 시절을 보냈다. 워낙 유명한 책이지만 모모라는 책은 너무 좋아서 책이 닳도록 읽었던 기억이 있다. 소설, 과학서, 역사서 등 분야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읽었다. 유년 시절 나에게 도서관이 도피처라면 어머니에게도 쉴 곳은 도서관밖에 없었던 것 같다. 어머니와 우리 자매는 같이 도서관에 다니며 각자 좋아하는 책을 고르고 함께 책 이야기를 했다. 그나마 딸들이 책을 좋아한다는 건 어머니에게도 위로가 되었을 것 같다.

첫사랑 그리고 커밍아웃

성인이 되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고 '우리가 연애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20살 때였다. 이전에는 연애를 생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관계가 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없었던 것 같다. 처음엔 그 친구와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가까워지다가 점점 대화가 잘 통했고 그러다 좋아졌다. 장거리 연애를 했고 한 6개월 만났다. 그 친구는 서울에 살아서 자주 못 봤지만 그래서 더 애뜻하고 늘

그립고 좋았다. 그게 내 첫사랑이었다. 그 친구는 나보다 한 살 어렸고 나는 대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할 때였고 그 친구는 고3으로 학교에 묶여 있어서 자주 만나기는 어려웠다. 조금 고전적이지만 만날 수 없을 땐 매일 편지도 쓰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학업에 열중하도록 응원했다.

그렇게 6개월 정도의 장거리 연애를 하는 동안 서로에 대한 감정의 온도 차를 느끼게 했다. 나만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첫사랑이라서 너무 설레고 벅차고 어쩔 줄 몰라 뭐든 주고 싶은데 아직 고등학생인 그 친구의 세계에서는 그러한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던 것이다. 관계의 균형이 안 맞으니 결국 그 친구도 나도 지쳐갔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헤어지게 됐다. 서로 싫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상황의 문제로 헤어진 첫사랑이라 실연 이후에 나는 너무 힘들었다.

동성의 애인을 만나며 좀 불편함이 있겠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스젠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둘이 붙어 다니는 것은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모습이고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을 모습은 아니었다. 팔짱을 끼고 다니거나 둘이 안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약간의 두려움은 안고 시작했던 것 같다. 그러다 실연을 겪고 상심이 너무 클 때,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MT를 갔는데 문제가 생겨버렸다. 어디에 말할 수 없는 동성 이별의 슬픔에 잠겨 소주 한 병을 급하게 마시고 그대로 만취 상태가 되어 바닥에서 토하고 울면서 내가 그 친구 이름을 부른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름은 성별을 드러내는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다.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이 다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다. 대학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그렇게 비공식 커밍아웃을 하게 된 것이다. 사실 술 때문에 아웃팅 당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날의 나는 블랙아웃 상태였던 터라 기억은 전혀 없었고 나중에 친구들에게 들은 바로는 내가 만취한 탓에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것보다는 주변 정리 후 일단 나를 진정시키고 재우는 일에 더 집중했다고 한다. 그런 정도의 말만 듣고 이후 친구들은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MT에 함께 간 친구들은 같은 학과 동기들이 아니라 교지 편집위원회 친구들이었고 퀴어 관련해 어느 정도 생각을 함께 하는 친구들이었다. 관련된 책도 함께 읽어보고 토론도 했던 친구들이었다. 그래서 교지 편집위원회 친구들에게 만큼은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다. 그것은 친구들에 대한 나의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온전한 정신 상태의 공식적인 첫 커밍아웃, 내 목소리가 덜덜 떨렸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친구들에게 ‘사실 나는 양성애자야.’라고 말을 하는 게 그때의 나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다. 나는 친구들을 믿기에 커밍아웃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깨뜨리고 나를 거부하거나 혐오감을 드러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며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없었다. 원래 나와 아무 관련이 없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건 덜 아프다. 하지만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혐오감을 드러내는 것만큼 아픈 것은 없다. 그런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에 대한 공포감이 나를 떨게 했던 것 같다. 다행히도 친구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우리들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동아리 결성과 연대

20살 초반에는 특별한 인식 없이 난 ‘그 친구가 좋아’라고만 생각을 했지 내가 성소수자라든지 퀴어라든지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실연 이후에 친구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깊어져 커밍아웃을 하게 되고 오픈된 내 정체성에 힘을 실어 주고자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도 만들어보려고 노력했다. 동아리를 만든 계기에는 서로의 정체성을 모르고 지내던 한 친구의 역할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편지로 나에게 커밍아웃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 되었고, 둘이나 있는데 뭔가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의도치 않던 학내 커밍아웃으로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엘라이 친구들이 생겼고, 친구의 커밍아웃으로 퀴어 동아리를 만들게 된 것이다.

나 혼자서는 힘들어도 둘이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부터 시작할지 고민하다 당시에 서울 지역에는 퀴어 동아리가 흔하다는 걸 듣게 됐다. 찾아보니 서울대나 이화여대 등 각 대학교 별로 무조건 거의 하나씩은 퀴어 동아리가 있고 거기에서 정규 동아리로 승인된 곳도 있어서 우리는 용기를 얻었다. 우리는 전대에도 퀴어 동아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용봉교지 편집위원회의 친구들한테도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퀴어 친구들을 모을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맞댔다. 퀴어들이 모여서 활동하며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엘라이들과도 만나며 지금과는 다른 사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생존과도 맞닿아 있는 일이다. 그런 세상에서 나답게 살며 온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다. 동아리는 그 변화의 시작인데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 자칫 아웃팅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

던 중 당시 다행히 카카오톡 채널이 생겼고 이를 이용하여 모임을 주도했다. 오프라인 홍보는 다른 대학교 사례를 참고하여 화장실에다 홍보물을 붙였다. 화장실 안쪽 문에다 붙이면 누가 붙였는지, 누가 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조직하기 시작해서 10명 넘게 모였다.

학내라는 공간에서 어떤 위험이 따를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찾아온 것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픈 목마름이 간절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만 학우 중에 10명이면 진짜 적은 인원인데 용기를 내어 서로를 만나려고 모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희소한 존재들이고 서로에게 더없이 귀한 만남이었다고 생각한다. 동아리 결성 사실이 알려지며 직접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에게까지 우리가 느끼지 못한 반향이 훨씬 더 컸던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졸업한 다음에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이런 경력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회장을 맡아 하던 중 부모님의 이혼으로 동아리 일을 열심히 하지 못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과정에서 법률적 문제 등으로 어머니에게 도움을 드려야 해서 법원에 다녀야 했고 나는 동아리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동아리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서 얻은 용기와 다양한 활동들은 성소수자 연대활동이나 지역의 퀴어 문화 축제 준비위원회 등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 커밍아웃과 노조의 정관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이성애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에 성소수자 자신도 이성애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의 행동을 패싱이라고 한다. 나 또한 기본적으로 이런 패싱을 겪는 과정이 있었고 퀴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커밍아웃을 통해 정체성이 천천히 더 강화된 부분이 있다. 퀴어 정체성이 자리 잡은 이후 당혹스러운 발화 상황에 부딪힐 때는 웬만하면 대체 표현을 쓴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란 말은 애인으로 대체 한다든지 배우자 같은 경우는 생활 동반자, 결혼은 파트너십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양성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성적 호감’을 어떻게 대체해 말해야 할지 제일 어려웠다.

그렇게 패싱을 하며 산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조직 생활을 하게 되었다.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또는 자랑하듯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내 동성연애 사실을 밝히며 나의 연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나 또한 당신들과 다르며 때로 같은 나의 연애 사실을 밝히고 싶었다. 연애를 한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구성원의 하나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회식 자리를 빌려 용감하게 커밍아웃을 했다. 두 번째 커밍아웃이었다. 나중에 동료들의 말을 들으니 결혼 적령기인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나, 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고 딱히 관심 없이 사는 사람으로만 보였다고 했다.

그 직장과 동료들에 대한 믿음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커밍아웃을 한 것도 있었고 직장 내의 다양성이 존중받게 만들고 싶은 마음도 컸다. 대놓고 혐오를 드러내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 확신했던 것 같다. 나의 커밍아웃 이후에 동료들은 좀 어려워했다. 동료 중 한 명으로서 수많은 정체성 중 소수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 존중하거나, 여기 남다른 친구가 있으니 불편한 말을 하면 안 되겠다

고 경계해 버리거나 여러 변수를 생각했었는데 동료들의 판단은 말조심 쪽을 선택한 것 같았다. 물론 나만의 느낌이었을 수 있지만 나는 그 뒤로 배제되고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기 때문이다. 연애나 이성애 관련 주제의 이야기에서 내가 배제당했다는 표현이 맞을지 그분들이 그냥 자제하신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나는 그저 다양성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바꾸자는 것인데 아예 그런 언급을 내 앞에서는 회피하는 분위기를 느꼈다. 다행히 자기 자신을 선하게 만드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래서 뭔가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렇게 이성애 중심주의적인 이야기들을 속에 경종을 한번 울려보고 싶다는 용감한 포부는 큰 소득 없이 끝났다.

큰 소득은 아닐지라도 의미 있게 내 의견이 반영된 일도 있다. 그 회사에는 다른 기관과 함께하는 연합 노조 모임이 있었는데 노조 내규 정관을 만드는 일이었다. 정관 내용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나는 성별, 연령, 직급 차별 문제 등 차별을 차별로 분명하게 적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직 차별금지법은 입법되지 않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차별 관련한 내용이 있으니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내규에 담자고 말했는데 모두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는 회사 규모에 맞게 이 정도 하면 되지 국가 인권위 수준으로 스무 개가 넘는 조항을 다 넣자는 것은 과잉이라고 했다. 정관도 길어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냐며 어차피 고작 노조 정관인데 우리 상황에 맞게 하자는 말만 하셨다.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고작이나 정도라는 말로 대충 넘겨져 버린다. 그럴 때는 진짜 말문이 막힌다. 그 자리에서는 대응할 방법을 못 찾아서 노조 위원장이셨던 분에게 따로 카톡을 해서 나의 성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성별 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만약 누군가 아웃팅을 당했을 때 또는 내가 커밍아웃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처분이 내려온다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약자로서 우리를 지킬 방법이 달리 없었기 때문이었다. 노사 협약 직전에 기본 초안을 만드는 작업이라 그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다. 위원장님이 카톡을 읽고 어렵게 대신 입을 떼주셨는데 그때 분위기가 또 싸해졌다. ‘굳이 성별 정체성 내용을 넣으려는 이유가 뭐지?’라는 시선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 내용에 담았다. 그러니까 다들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저 본인의 필요와 닿아있지 않아서 나와 같은 소수자의 절박함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용을 반영하긴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불편했다.

‘천상홍연 프로젝트’와 자본

천상홍연 프로젝트를 2021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3월까지 진행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공모 사업을 받을 수도 없고 대외적인 무엇을 할 수 있는 아무 계획도 없던 터라 무작정 하고 싶었던 사업이었다. 코로나 시국이라 못했던 퀴어 축제를 대신해서라도 뭔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축제는 물론 모여서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연말리기라도 해서 서로의 마음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거리두기를 하면서 무지개 연을 날리는 천상홍연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돈이 충분치 않아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몇십만 원씩 친구들의 후원도 받았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데 참여해줄 수 있냐고 물

었고 흔쾌히 해준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 창립 멤버 8명으로 시작해 이후 변호사님도 오셔서 9명이 되었다. 9명이 모여 처음엔 대형 행사를 기획하다가 오미크론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결국 대형 행사는 포기했다. 계획을 수정하여 온라인 참여를 받고 모은 내용들을 영상으로 송출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작업을 했다. 오프라인 행사는 열지 못해 아쉬웠지만 서로의 연대와 지지를 공감했던 프로젝트였다.

천상홍연 프로젝트는 일회성 프로그램이라 그 진행과 결과물을 얻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그런 행사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단체를 만들 준비는 아직이었다. 자본을 끌어오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인력을 확보하고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것들이 단순히 내 개인적인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님을 경험했다. 단체 운영에 대한 꿈을 접은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과 제도권에 부딪히면서 인연을 만들어가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지속가능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무리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해도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도 단체를 운영할 정도의 자본이 없다. 자본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단체운영에 대한 노하우나 인력도 필요한데 다방면에서 부족한 것들이 많은 상황이다. 성소수자분들이 모일 수 있고 안전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과 인력이 절실하다. 작게는 각자의 상처를 드러내고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센터나 자조 모임 같은 것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러한 네트워킹이 너무도 부족하다.

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소수자의 정체성을 경험하지 못한 다수가, 그 다수의 상황과 생각으로 보편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이다. 그래서 소수자에겐 숨 쉬듯이 모든 게 차별이다. 차별이

너무 흔해서 어떤 게 차별이고 이것은 혐오고 무엇이 단순 실수인지, 의도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다수에게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사소하거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성소수자들에게는 생존에 영향을 끼친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가족에게 커밍아웃 혹은 아웃팅 당해서 탈가정 하는 경우들도 있고 쿼어 친화적이지 않은 직장에서 아웃팅을 당한 후 매일 아침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도 있을 것이다. 그 누구의 지지도 없다면 삶 자체가 혼자만의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계약 완료로 회사를 그만두고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글로 돈 벌기에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쉽지 않은데 프리랜서처럼 일단 1년 동안 그렇게 지낼 것 같다. 벌이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대필을 쓴달지 이렇게 글 작업들을 하면서 돈도 벌고 내가 쓰고 싶은 글도 쓰고 있다. 소설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설이 쓰고 싶었다. 원고를 정리해서 출판사에도 보내보고 싶다.

해군 소령에서 배달 라이더로

해군 소령에서 배달 라이더로

라이더로서의 장단점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이 되기까지

공제회와 등록제 그리고 법규보완

당부와 소망



해군 소령에서 배달 라이더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스물다섯 살에 임관하여 장교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군대에서만 일하면 나중에 후회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늦기 전에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8년 복무하고 소령으로 전역했다. 전역한 후 내게 특별한 경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고향인 광주로 돌아와 건설회사 경리로 입사했다. 2014년이었는데 첫 월급이 170만 원이었다. 관련 경력이 없으니 이 급여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회사 상무님이 계셨는데 20년 이상 회사에서 근속하신 분이 세금 공제 후 350만 원 받는다고 했다. 군 생활 당시에 받았던 급여가 350만 원이었는데 직군에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상무님의 급여는 근속에 대한 평가절하가 느껴지는 급여였다. 사회생활 하는 친구들을 만나며 얘기하다 보니 그 회사에 근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1년 정도 다니고 회사를 나왔다.

건설회사를 나온 후 자영업을 하게 됐다. 초밥집을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좋은 재료를 쓰자니 단가가 올라가고 단가를 내리자니 좋은 재료를 못 쓰고, 당시에는 초밥 찍는 기계가 없어서 손으로 다 하다 보니 인건비도 많이 들었다.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님들의 입맛도 맞추기 어려웠다. 결국 폐업하게 됐다. 폐업 당시 내 나이가 서른넷인데 지방 도시인 광주에서 서른넷으로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나 편의점 직원을 뽑는 곳은 갈 수가 없었다. 이미 결혼도 했고 일정 정도 한 가구를 꾸려나갈 수입이 보장되어야 했다.

사관학교 다닐 당시에 전공이 법학이라 로스쿨 입학 준비해보려고 했는데 학비에 대한 문턱이 너무 높았다. 한 학기에 대략 2천

만 원 정도 학비가 들고 총 네 학기 다니면 8천만 원 정도 있어야 하고, 2년 동안 공부 외에 들어가는 생활비 등 소요되는 금액을 생각하면 1억 넘게 예상되기에 엄두가 안 났다.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그렇게 고민만 하던 차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막연하게 일 년이 흘렀다.

그러다 2017년 지금은 사라진 배민 라이더스가 생겨 새로운 삶의 장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배민 라이더스는 플랫폼 자체가 지금의 플랫폼들처럼 탄탄하지 않았고 고객이 적어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다. 건당 배달료가 5천 원 정도로 그때 하루에 열두 시간 정도 일하고 제일 많이 번 날 수입이 십오만 원 정도로 기억한다. 두 달 정도 일하다가 사고가 났다. 큰 사고는 아니라 3m 정도 땅바닥에서 굴렀고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배민 라이더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나와 수습해주고 갔다.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오토바이를 이용했는데 그다지 좋은 오토바이는 아니었다. 와이프가 이렇게 다치면서 일을 하면 되겠느냐며 일을 계속하길 원하는 나에게 1000만 원이 넘는 오토바이를 사줬다.

그 사이 광산구 신창동에 제트콜이라는 일반대행 배달업체가 눈에 띄어 그곳에 가서 보니 광산구가 도로 상황이 좋고 다른 여건도 좋아 보여서 일반대행으로 옮겨 일하게 됐다. 배민 라이더스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이 벌었다. 보통 하루 12시간 일을 하면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벌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다. 일반대행 같은 경우, 회사에 소속된 라이더는 계약에 정해진 휴무와 근무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았다. 나 같은 경우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 시간이었는데 콜이 계속 들어올 때는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도 일을 요청하면 거절하기 힘들었고 바쁠 때는 쉬는 날이나 주말도 부르면서 일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쉬면

서 거의 매일 일했다. 사장님은 좋은 분이셨기에 처음엔 그분도 어쩔 수 없는 경우 부탁을 하시겠지 하며 이해하기도 했지만, 너무 피곤하면 때로는 거절하게 되고 서로 불편한 상황이 자주 생겼다. 시간 외 근무를 더 하면 물론 돈은 더 벌지만, 돈을 더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만큼 몸이 너무 지쳐갔다. 2019년 12월까지 일반대행 업체에서 일하다가 스트레스와 누적된 피로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배달 오토바이는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일상적으로 신호위반 하는 오토바이와 두 번째 부류는 신호를 잘 지키며 주변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신호위반을 하는 오토바이가 있다. 첫 번째 일상적으로 신호위반 하는 경우는 일반대행 오토바이일 확률이 높고 두 번째 신호위반이 양호한 경우는 플랫폼 오토바이들일 확률이 높다. 요즘 플랫폼 배달은 단건 배달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에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급하게 다니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대행 오토바이들은 최소 물건을 다섯 개씩 싣고 다니며 시간 안에 배달해야 하니 위험하게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의 일반대행을 나와서 단건 배달을 하는 플랫폼으로 옮기게 됐다. 그렇게 광주에서 요기요 서비스가 시작된 21년 1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기요에서 일하고 있다.

라이더로서의 장단점

광주에서는 평균적으로 내 또래 직장인들이 받는 보통의 급여가 250에서 300만 원 사이일 건데 이 배달 직종 자체는 300만 원을

벌려면 3주만 열심히 하고 일주일은 쉬어도 된다. 오토바이라는 교통수단의 한계로 위험 요소도 많지만 그런 단점을 상쇄할 정도로 일한 만큼 급여가 보장된다. 힘든 날이나 특별한 일이 있는 날은 쉴 수도 있고 업무 시간의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회사 다닐 때는 가족 행사나 집에 특별한 일이 있어도 일이 먼저였지만 배달일을 하면서는 가족 행사에 참석이 쉽고 일과 중 어머니 집에 가서 밥 먹을 수도 있고 어머니의 급한 부탁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도 있다.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자유롭게 오가며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고 좋다. 그리고 요즘에는 배달업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 어머니조차도 내가 배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밑바닥 일을 한다며 걱정하셨는데 근래에는 직업으로 존중해 주시는 것이 느껴진다. 나뿐만 아니라 사촌 동생도 하고 있고 어머니 친구들 자녀들도 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직업으로 선택하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인식도 바뀌는 것 같다. 또 어머니에게 용돈도 드릴 여유도 있어서 만족스럽다.

물론 아직도 라이더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항상 위험에 노출된 직업이라는 단점도 있다. 최근엔 개인정보법이 강화돼 어플에 나오지 않는데 예전 배민 라이더스 초창기에는 물건 픽업하고 배달을 가면 ‘김광수 기사님이 배달 중입니다’라고 이름과 사진이 함께 떴다. 초밥집 사장을 하다가 폐업하고 배달을 시작한 초기에는 이런 상황이 부끄러웠다.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다. 한번은 커피 배달 가다가 마주친 어르신 한 분이 “요즘에는 남자가 오봉을 하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아마 몇 년만 더 어렸으면 그 어르신이랑 싸웠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배달업에 만족하고 이것도 직업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좋은 인식을 담으려 노력했다. 그래서

“요즘에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까? 남자도 할 수 있는 거죠.”라고 말하고 그냥 웃어넘겼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내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찾으려 노력하던 중이라 감정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 그런 문제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여겼다.

위 상황처럼 인식의 문제보다는 안전 문제가 큰 단점인 직업이긴 하다. 단건 배달이라는 시스템은 쿠팡에서 최초로 시도됐는데 최대한 빨리 배달 음식을 받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간파한 기획이었고 순식간에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다. 차차 배민 라이더스에서도 배민 원이라든지 요기요에서도 단건 배달 시스템을 따라나섰다. 그렇지만 일반대행 시장은 이 플랫폼 3사에서 버틸 수 없는 그런 시장이다. 좀 늦게 받더라도 배달료가 적은 것이 더 좋다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일반대행의 라이더들은 보통 대기시간이 많고 일정 시간에만 일이 몰리니 한 시간에 못해도 5-6건을 배달하게 된다. 10분에 물건 픽업하러 가게 한 곳, 집 한 곳씩 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 같은 곳은 뛰어 올라가야 하고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운행도 급해지게 된다.

광산구에 있는 일반대행 업체에서 일할 때 내가 소속된 사무실에 라이더가 70명가량 되는데 4년 동안 아는 사람만 여섯이 사고로 죽었다. 갑자기 안 보여서 누구 어디로 옮겨 갔냐고 물어봤지만 사망 사고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입을 열지 않는다. 지사장도 일부러 말을 안 한다. 내가 알 수 있는 정도가 6명이고 더 많을지도 모른다. 얼굴을 알고 인사하는 사이가 열댓 명 정도인데 평소에 오며가며 인사 나누던 친구가 어느 날 안 보여서 물어보면 사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산구 그 업체는 지리적인 특성이 한몫하는데 밤이

되면 매우 어둡다. 차도 많지 않으니 시속 100km, 120km로 달린다. 떠나가신 분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게 달리다 사고가 나면 사망하는 게 낫다고 본다. 평생을 중환자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도 고생시키고 본인의 몸도 못쓰게 되니 말이다. 내가 사는 두 암동에서도 가끔 보는 라이더 친구가 있는데 볼 때마다 헬멧을 안 쓰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보이지 않는다. 왜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볼 때마다 염려스럽고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렇게 만드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개인의 욕심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구조적인 원인도 있다. 여러 건을 단시간에 배달해야 하는 시스템도 문제이고 일반대행 업체 사무실에서 그 회사에 소속된 기사들 사이에 경쟁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 업체 지사장들이 오늘의 일등은 누구, 이등은 누구, 삼등은 누구 단톡방에 올리고 하루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득을 올렸다고 공개한다. 그런 상황에서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경쟁심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분위기에 따라가게 된다. 그러다 보면 좀 더 급하게 운전하고 위험하게 운전하게 된다. 특히 일반대행의 가장 큰 문제는 업계에 후발주자로 진입하여 라이더를 새로 모집하기 힘든 경우 변호관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없는 15세 청소년이라도, 조건 없이 일을 준다는 것이다. 장벽이 너무 낮은 직종이고 언제든지 나와서 일할 수 있고 인원은 넘쳐난다. 그래서 내 경험에 비추어 일반대행 라이더들도 플랫폼 업체로 옮기길 추천하고 싶다. 또는 일반대행이건 플랫폼 업체이건 라이더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이 되기까지

요기요에서 근무하면서 해결하고 싶은 소소한 문제들은 세 가지 정도가 있었다. 요기요 익스프레스가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는 추세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회사가 돈이 많아야 라이더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 광주 라이더들은 이해하는 편이다. 두 번째 문제가 됐던 부분은 요기요 배달 어플 자체에 오류가 많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단건 배달이지만 콜이 밀리면 라이더가 부족해서 다 건 배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 있었던 사례로 한 라이더가 물건 다섯 개를 싣고 순차적으로 배송을 하는데 중간에 배달 하나가 어플 오류로 없어졌다. 어플에서 지시한 대로 배달하고 왔는데 물건이 하나 남았고 요기요에서는 어플 상에는 문제가 없다며 남은 물건은 라이더에게 변상을 요구했다. 사측의 기술적인 문제를 기사에게 책임을 묻은 것이라 억울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올해 안에는 프로그램이 바뀐다고 한다. 이는 곧 해결이 될 문제이고 세 번째 문제로 허브 폭언문제가 있다. 언젠가 배달 문제로 라이더와 허브 직원의 말다툼이 있었는데 허브 직원이 라이더를 하대하는 일이 있었다. 본인은 정규직이고 너는 프리랜서라며 함부로 말을 했고 이런 일이 수도권에서도 있었던 문제라 이슈가 되어 요즘에는 좀 조용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문제로 라이더 과실이 아닌 사고가 났을 때도 물건값을 물어내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속 깊은 대화가 필요한데 배달업의 특성상 만나기가 어렵고 배달하며 스치는 것이 전부이니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기회가 없었다. 자주 보는 기사들과 단톡방을 만들고 마주치는 기사마다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라는 권유를 하며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50명 정도 된다.

모여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낀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프로모션 삭제였다. 수도권은 있으나 지방에서는 아예 삭제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 불만이었지만 표출하지 않고 조용히 일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디에다 목소리를 내야 할지 모르겠고 허브라는 사무실이 있지만 개인이 찾아가 봐야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노조를 만들려고 생각했다. 노조를 만들려고 관련법을 찾아보니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단체 행동이라는 게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군대에 있을 때부터 그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단체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검색을 해본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데 결론적으로 사무실을 개설해야 했고 노조를 만들 인원수도 당시에 너무 적어서 노조를 만들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단톡방에 있던 광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이 박정훈 위원장님을 만나보자고 하여 라이더유니온을 만난 것이 작년 2021년이다. 그렇게 단톡방을 통해 라이더유니온 노조에 가입하려고 모인 인원이 16명 정도였고 지금 노조 조합원으로 들어온 광주요기요 조합원이 스물다섯 명 정도 있다.

공제회와 등록제 그리고 법규보완

대형 사고가 났다 하면 거의 일반대행인 경우가 많았고 요기요에서 일하며 특방에 들어와 알게 된 사고로는 지금까지 경상자만 있지 중상자 이상은 없었다. 단건 배달은 적지만 요기요 라이더 중에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상대방 일반 과실 비율이 높다. 통계자료를

정확히 뽑아본 건 아닌데 대부분이 상대방 일반 과실이었고 기사 과실은 삼십 퍼센트 정도이고 사망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사망 사고를 막으려면 단건 배달을 의무화 시키고 대신에 단가를 좀 높이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단건 배달 의무화를 노조 차원에서 주장하기는 힘들고 일반대행 업체에서는 더더구나 힘들다. 그러나 라이더가 많이 벌고 싶으면 많이 일하고 많이 가져가면 된다는 합리적인 듯한 시스템은 사고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오토바이로 시속 80km를 달리며 일한다는 것은 이미 목숨을 도로에 저당 잡히고 일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라이더의 복지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공제회이며 공제회는 당장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잠깐 노가다 일용직을 다닐 때 하루 일당이 14만 원이었는데, 직업소개소에서 그중 10%인 14,000원을 세금으로 떼고 십이만 육천 원을 받았다. 그 10% 안에 산재보험과 이것저것 원천세가 들어가 있었다. 인력회사들이 중간에 장난질을 많이 하니 건설공제회에서 관련된 세금을 떼고 임금을 해준다고 알고 있다. 그때 느낀 공제회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배달업계의 일반대행 시스템이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면 건설노동자 공제회처럼 배달 노동에도 공제회가 필요하다.

화물차도 화물공제회가 있고 택시도 택시공제회가 있다. 이렇게 특정 업무 차량에 대한 공제회들이 있는데 오토바이 배달은 아직 준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화물차 장비는 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공제회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그에 반해 오토바이 배달은 초기 자본이 적은 탓인지 그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의식들이 미흡하다. 그런데 초기 자본이 안 든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일단 일반대행업체 창업이 쉽고, 고객 유치를 위해 배달 단가를 낮

취가며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또 오토바이가 가진 장점으로 기동성이 크다는 것만큼이나 단점으로 사고에 대한 취약성이 큰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밖에 일반대행업체에서 편법으로 일어나는 노무 관리나 오토바이 렌탈 관련 일로 인한 문제들도 적지 않게 바로 잡을 부분이 많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건설공제회처럼 배달공제회라는 이름으로 지자체 단위로 만들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공제회가 만들어지면 사고가 났을 때 공제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취업 교육 점검 등에서도 라이더들의 직업으로서의 안전망이 좀 더 튼튼해질 것이다. 오토바이 상태는 라이더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기 점검이 중요한데 보통의 경우 점검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공제회가 생긴다면 이 또한 의무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등록제이다. 배달업계는 진입 장벽이 낮고 쉽게 라이더를 모집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유입도 가능하고 심지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무판 오토바이는 불법이며 너무 위험해서 동료들과 무판 오토바이를 쫓아다니며 번호판 붙이고 다니라고 충고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리고 배달에 적합하지 않은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걸로 배달하시다가 사고를 겪는 분들도 많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제도가 배달용 오토바이 기종에 일정 조건을 제한하는 등록제이다. 자동차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바퀴의 잠김으로 일어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ABS라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두 바퀴인 오토바이도 ABS가 적용된 모델들이 있다.

ABS가 적용되면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바퀴가 안 돌고 브레이크를 차체가 잡았다 풀었다 반복하기를 일초에 육백 번 정도 작동하여 중심을 잃지 않고 멈출 수 있고 조향을 할 수가 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두 바퀴이니 ABS가 없으면 무조건 넘어진다. 적어도 배달 일에 등록하는 오토바이라고 한다면 ABS가 장착된 오토바이로 제한해 대형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

공제회나 등록제가 필요한 것은 리스 형식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반대행 사무실에서는 본인 오토바이가 없는 사람에게 오토바이를 제공을 해줄 때 흔히 말하는 리스라는 형식으로 내려준다. 그렇게 되면 일차감이라는 것이 발생해 막 시작하는 라이더들이 자주 타고 다니는 피씨에스, 엠맥스라는 기종들은 125cc 정도로 하루에 2만 원 정도 사무실에다 돈을 내야 한다. 사무실은 이 돈으로 보험비와 리스비를 낸다. 매일 성실하게 일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1년 계약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라이더 중에는 리스한 오토바이를 번호판 떼 상태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배달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한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일을 만들면 회사도 방어 수단이 필요하니 캐시 출금을 막아 놓고 배달 수수료를 못 뽑게 한다거나 강제로 빼간다거나 하는 등의 일이 생긴다. 일반대행 관리하에서 서로가 범죄 아니 범죄를 조장하게 된 셈이다. 공제회와 등록제를 통해 업계의 이러한 문제들 또한 관리 감독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교통법규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동차선 2대 주행은 불법이다. 하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 실제 경험상으로 동차선 주행을 많이 한다. 내가 선행 주행을 하는데 같은 차선으로 끼어드는 오토바이를 만날 때면 심한 욕을 하기

도 한다. 위험하니 그렇게 경고하는데 욕을 먹는 당사자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 한지도 모른 채 왜 욕을 하나는 반응이 많다. 오토바이 동차선 2대 주행은 불법이고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중상자가 많이 나오는 유형이므로 이에 대한 법규 강화나 단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달 노동이 필수 노동이 되었는데도 정부나 관계 부처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관심도 대책도 미비하다. 다수가 오토바이에 대해 잘 몰라 일어나는 사고이고, 빙판길이나 빗길에서 다치는 상황이 일상인데 이러한 다수의 안전사고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도 마련과 안전교육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부와 소망

배달 노동자 스스로 직업인으로서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내가 군인이면 다음 날 출근 전 저녁 전투복 빨아 다려놓고 기타 장비들을 점검하고, 회사원이라면 양복을 입거나 업무에 맞는 차림과 격식을 갖추지 대충 아무렇게나 걸치듯 입고 출근하지는 않는다. 회사에 구두를 신고 출근해야 하는데 슬리퍼를 신고 간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라이더 중에는 자신의 분신이자 생명줄인 오토바이를 관리도 하지 않고 마구 타버리거나 헬멧도 쓰지 않고 집에서 입던 반바지 차림으로 일하기도 한다. 무슨 일이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복장과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것들을 너무 안 지키고 있다. 그러다가 사고 나고 다치면 그때 가서 후회해 봤자 이미 때는 늦었다.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오토바이 사양이나 적합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곳은 정부이지만 라이더 자신부터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자신의 직업을 빛나게

할 노력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배달업에 입문하고 피치 못할 이유로 배달업을 떠나고 있다. 수치화 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무수하다. 인지하고 있는 위험 요소는 셀 수 없이 많은데 대응책은 부족하고, 그에 대해 개인으로서나 직원으로서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도 많다. 배달 노동이 사회의 필수 노동이 된 만큼 배달업이 라이더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고 동시에 시장 생태계를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에 일조하고 싶다.

콜센터 상담사의 고충

육아를 위해 선택한 일

콜센터 상담사의 고충

건강보험공단의 필요로 만들어진 콜센터

노동조합 설립

본사로 향하는 파업



육아를 위해 선택한 일

학창 시절 수학 공부를 좋아해서 수학과에 진학했다. 학사 졸업 후 대학원에 입학해 석사로 졸업했다. 그런데 내 성향이 외향적인 데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연구하며 의자에만 앉아있는 건 도저히 못 하겠구나 싶어 학교를 박차고 나오게 됐다. 취업해서 회사에 다니다가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았다. 아이가 셋이라 육아만으로도 정신없이 바빴는데 신랑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고 신랑은 부도난 회사에 계속 매여있었다. 막내가 세 살 정도 되었을 때부터 가정어린이집에 맡기고 나는 과외를 했다. 그러다가 아이들도 내가 직접 키우고 돈도 벌기에는 학원이 괜찮을 것 같아서 집 근처에 학원을 차리려고 상가 가계약까지 했지만 시작하지는 못했다. 무산된 이유는 육아 문제가 컸다. 학원을 하게 되면 늦은 밤 퇴근으로 애들만 집에 있어야 한다며 친정엄마가 말리셨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시기였고 때를 놓치니 기회를 다시 찾기는 힘들었다. 지금도 한 번씩 우리 애들은 엄마가 그때 학원을 했어야 됐다면서 아쉬워한다.

그래서 세 아이의 나이가 14살 8살 5살이 되었을 때, 정시퇴근하는 직장을 1순위로 두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직에 입사하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으로 갈까도 생각했는데 반일제만 뽑았고, 건강보험공단은 종일제 직원을 뽑아서 그 일을 선택했다. 정시퇴근이 가능했고 애들이 학교를 설 때 나도 쉬니까 애들을 내가 돌봐줄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다 좋을 수는 없었다. 아이가 아플 때는 연차가 필요한데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다. 그때 당시, 지정된 연차가 아닌 때 연차를 쓰게 되면 팀에 영향을 주고 내 실적에도 영향을 끼쳤다. 나의 경우 그 당시에는 평가가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던 사람이었는데, 연차를 한 번 쓰거나 내 실수로 민원이 하나 생기면 등급이 떨어지고 월급 7~8만 원이 깎였다. 그런데 급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점수가 깎이면 팀 동료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그러다 보니 연차를 연차로써 잘 활용하지 못했다. 어린아이들은 자주 아파서 병원도 수시로 다녀야 하는데 연차를 원하는 때에 쓸 수가 없다는 것은 엄마들에게는 큰 고충이었다.

우리 집은 다행히 큰딸이 막내를 거의 다 키우다시피 했다. 내가 과외 수업을 가면 큰딸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챙겨주면서 막내를 키웠다. 큰애도 돌봄이 필요한 어린애인데 8살짜리가 학교 가는 길에 둘째 손을 잡고서 유치원에 등원시킨 후 자기 학교에 가는 식으로 동생들을 키웠다. 항상 급한 일에 대비해 카드를 집에 두고 다녔고 병원도 고정된 곳을 다니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는 병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알고 있었다. 내가 못 가면 큰애가 동생들 데리고 병원도 가고, 사실 육아에 있어 아빠보다 큰딸에게 더 도움을 받았다. 아직도 마음이 아픈 건 막내가 4학년 때부터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닌다는 것이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해서 막내 아들이 너무 일찍부터 엄마랑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나는 나대로 직장생활을 하며 애들 학원비라도 보탬은 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최상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 잘할까를 줄곧 고민했다.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도 내가 노력하면 더 많은 보수가 보상을 주리라 생각하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버티다시피 일했다. 하지만 그때처럼 계속 일했다면 과로로 죽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콜센터 상담사의 고충

상담사로 근무하면서 항상 아팠다. 몸이 늘 무겁고 두통이 끊이지 않았다. 장시간 자리를 지키며 전화 상담을 하다 보니 방광염 같은 증상은 일상이 되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 퇴근 후에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은 운동을 다녔다. 배드민턴으로 정말 힘들게 땀을 빼고 운동하고 와서, 나는 운동을 하니 건강할 거라고 안도했지만 이미 면역력은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였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질 않았다.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그런 병증을 달고 살며 월급은 최저임금에 업무는 업무대로 복잡한 것이, 수시로 바뀌는 건강보험법을 익혀야 했다. 공휴일에 남들처럼 쉬고 야근 없이 바로 퇴근한다는 장점 하나 보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그런 이유로 버티다 나중에는 아파서 퇴사한다.

아파도 회사에서 병가 사용을 아예 못 하게 했다. 그때는 무급 조건으로 병가를 내주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고 지금은 유급이라는 걸 알고 대응해 일주일은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 그전에는 무급 병가라도 쓰려면 무조건 내 연차 소진이 먼저 끝나야 인정됐고, 병가를 쓰고 오면 내 연차는 없어졌다.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겨 결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것도 누적되어 점수 차감이 되고 급여가 깎인다. 한 직원은 아이가 수족구에 걸렸는데 법정 전염병이라 어린이집을 못 보내고 아이를 데리고 출근했다. 자리 옆에 돛자리를 깔아놓고 아이는 가만히 있게 단속하며 근무했다.

연차는 원래 사용이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연차 사용도 쉽지 않아서 사전 연차만 인정됐고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한다. 가장 필요한 상황이 아이 아플 때 쓰는 연차인데 아이가 다음 달 며칠에 아플지 어떻게 알고 사전 신청을 할 수 있겠나. 당일 연차를 내달라고 하면 억지로 내주기는 하는데, 그날 근무를 갑자기 안 했으니 사전 연차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점수 차감과 급여도 차감 된다. 이

러한 점수나 급여 차감은 연차 시스템에서만 아니라 상담 기준 시간을 초과할 때도 적용된다. 상담 적정 시간을 2분 30초로 정해 두고 그 시간에서 평균 6~8초가 넘어가면 점수가 깎인다. 국민을 위한 공단이지만 통화를 길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보험료가 많다고 하소연하는 민원의 경우, 개인들이 대처할 만한 여러 방안에 대해 안내할 수 있지만 기준 시간 안에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든 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압류 들어가요.’ 이렇게 험박 같은 안내를 해서라도 내게 만들고 빨리 끊어야 전화를 많이 받고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열악한 시스템은 직군 자체의 한계라 치더라도 생리현상의 부자유는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느끼게 했다. 자리를 비우면 이석을 표시해야 하고 관리 직원은 전자 시스템으로 이석을 확인한다. 일종의 감시 시스템이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에 가서 5분이 넘어가면 팀장들의 재촉 전화가 온다.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에 시간 제약이라니, 그 어떤 통제보다 비인간적이다. 생리휴가는커녕 화장실 이용 시간조차 자유로울 수 없으니 피 묻은 바지를 입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 문제로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런 감시 체계는 화장실 이용 제약만이 아니라 전화 응대 횟수를 늘리기 위한 자발적 강제이기도 했다. 화장실에 가면 그 시간만큼 전화를 못 받으니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상위 등급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려고 밥도 안 먹고 전화를 받는 사람들도 많았다. 코로나라는 팬데믹 직전에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콜을 멈추었는데, 전에는 점심시간에도 계속 전화가 들어오니 아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밥도 안 먹고 전화를 받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방광염은 기본이고 신우신염으로 입원한 직원도 많았다. 그런데 입원으로 결근하면 그만큼 또 상담 시간이 줄어들어 점수가

깍이니 입원도 못 하고 약만 먹고 출근하는 그런 하루가 반복된다. 그러다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면 병원에 빨리 가야 하는데 왜 아픈지 그 사유를 포함해 병가 신청서를 회사에 나와 직접 쓰고 가라고 한다.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환자들이 회사에 얼굴과 상태를 보여주고 신청서를 써야만 하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인 통제 탓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유도하게 한 미필적 방조 시스템부터 살펴야 할 문제다.

이런 관리 시스템은 직원만의 고충이 아니다. 국민 복지를 위한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정당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무조건 전화를 빨리 끊기기만을 바라며 상담하는 자세가 체화되어 갔다. 시간을 점수화하는 시스템에 압박이 심하고 그로 인한 민원이 더 많이 생겨 상담사로서 상담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피로움에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한다. 민원인의 폭언에 서러워서 화장실에서 울고 있기라도 하면 당장 돌아와 전화 받으라고 관리자가 으박지르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쫓아와서 빨리 일하라고 다그친다. 나도 악성 민원에 시달린 적이 있다. 주민등록증 번호를 물어보아야 업무 처리가 되는데 개인정보라는 것을 꼬투리 잡아 화를 내며 막말을 일삼고 나는 90분 동안 감정과 막말의 쓰레기통이 되어야 했다. 그렇게 시달리고 나서 1년은 아팠다. 이런 일은 한 번만 겪어도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다. 일상적인 질병인 방광염을 달고 살며 항생제를 아무리 먹어도 나아지질 않았고 근무 시간 중 병원에 갈 수 없어 점심시간에 식사를 포기해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의 필요로 만들어진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은 공단의 정규직 직원이 아니고, 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업체를 바꿔 계약하는 형태의 계약직이다. 위탁업체들은 콜센터 직원 관리 방법을 공유하며 촘촘하고 악랄하게 관리한다. 공단에 이런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 ‘당신들은 공단의 직원이 아닌 민간 위탁업체의 정규직이니 공단과는 무관하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다. 공단과 계약한 민간 위탁업체의 관리자는 아침 9시가 되기 전에 공단에 보고한다. 보고 내용은 직원 근태에 관한 것들로 연차를 낸 사람 누구, 지각한 사람, 중간 조퇴 등등 대개의 행적이 공단에 보고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관리자가 직원이 아니라고 한다. 사무실 안에 있는 모든 집기가 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간 위탁업체는 물 하나 사는 것이 없다.

또 공단 본사 직원들은 콜센터 업무가 간단하다고 말하는데 이 업무는 간단하지 않다. 공단의 거의 모든 업무를 알아야 민원에 대응을 할 수 있다. 공단 정규직들은 본인 부서 업무 하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일하는데 고객센터 소속인 우리는 공단 업무 전체를 알아야 민원 대응이 가능해 숙지해야 할 업무가 1,600가지가 넘는다. 업무 교육을 위한 책만 4권이다. 그런 업무의 과중 때문인지 위탁업체에서 신규 상담 직원을 뽑고 교육하는 기간 중 한 달 과정이 끝나기 전에 절반 이상이 나간다. 가장 많이 버텨야 절반이고 거의 한두 명 남고 이탈하는 상황이 태반이다. 이 업무 자체가 어렵고 복잡해 경력이 쌓인 나도 여전히 어렵다. 건강보험법이 개정될 때마다 계속 공부하면서 일해야 하니, 법 개정에 따른 영향으로 민원이 생기면 신입들은 버티기가 힘들다. 그런데 공단은 보수 교육(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제공, 보충하는 교육으로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그렇게 되면 민원이 많아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다가 또 법 개정이 된다.

그리고 공단에서 못하는 고객센터만의 업무도 있다. 예를 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진료를 받으려면 진료 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만 알 수 있고 수화 상담이나 외국어 상담도 공단 직원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각 업무의 특수한 부분도 있고 같이 협업하는 일도 많은데 고객센터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이고 2년마다 업체가 바뀌는 계약직으로 분류해 할 수 있는 일조차 선을 그어버린다. 권한을 가진 공단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단에 넘겨 처리할 뿐이지 우리도 다 아는 내용이고 처리할 수 있는 가벼운 내용조차도 공단은 자기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권한이 없기에 전화를 돌리고 민원인은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소모적인 문제가 생긴다. 민원인은 민원인 대로 만족스럽지 못한 문제 해결에 불만이 생기고 업무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그 신뢰 비용이 국가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크다고 생각한다.

공단 초기에는 공단 정규직 직원들이 상담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공단으로 걸려 오는 민원 전화가 많아지자 2007년 즈음 공단 직원들은 소규모로 전화방을 하나 따로 만들었다. 정규직 직원들이 거기서 전화를 받고 민원을 해결하려는데 차차 그 규모로는 감당이 안 될 만큼 전화량이 많아지고 업무량도 많아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민원을 해결하려면 전체적인 업무 파악에서부터 대응 처리까지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몇몇 직원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방만한 일이 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민원을 응대하는 상담 업무를 분리해 2007년 민관 위탁업체를 두고 고객센터를 설립했고 서울 센터를 시작으로 지역마다 하나하나 늘리다 보니 지금 12개 센터가 되었다.

설립 후 공단은 상담사를 고용해, 공단의 정규직 직원들이 1~2

년 정도를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며 가르치고 토론하면서 업무를 넘겼다고 한다. 그렇게 민관 위탁업체를 통해 상담업무를 이관한 후 정규직은 고객센터에서 서서히 빠져나갔다. 그러면서도 고객센터 노조를 설립하기 전까지는 고객센터만 관리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 공단의 직원이 보고 받는 구조였다. 우리의 경우 7층에 고객센터가 있고 6층 사무실에서 근태며 업무 등의 보고를 받고 관리한다. 우리가 상담업무 중에 본부에 요청해야 하는 것이 있거나 이관한 일이 잘못됐거나 하면 6층을 통해 일이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이 빈번하여 공단이 우리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니 6층의 공단 정규직 관리자들이 어느 순간 철수했다. 아닌 척하려 해도 공단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 설립

내가 같은 회사를 8년 넘게 다녔어도 지금처럼 2년 주기로 민간 위탁업체가 전환되는 상황에서는 근속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대출받기가 어렵다. 경력 인정도 쉽지 않고 근무의 안정성도 떨어진다. 2년 계약 완료 시기가 되면 그동안 아프거나 그만두고 싶었지만 버티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퇴사한다. 그래야 계약 완료로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앞날이 안 보이는 회사생활을 하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연금공단 콜센터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가 본사 소속으로 전환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시설직 비정규직이 본사 소속으로 포함됐다. 당연히 우리도 될 줄 알고 계속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2019년 7월쯤 건강보험공단 노조에서 고객센터를 업무 지원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며 전국 지회를 돌았다. 그때 당시 공단 노조 직원의 말씀이 너무 비관적이었다. 공단 정규직 직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때 모두가 본 그대로 정규직들은 애써 시험 보고 들어왔는데 위탁업체 상담사로 와서 정규직을 노리는 것이 탐탁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덧붙이길 서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이 안 돼도 좋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고객센터 정규직화에 회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같이 들었던 광주 고객센터 직원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규직과 동일한 연봉과 처우가 아닌 그저 다른 공기업들처럼 소속을 공단으로 해달라는 요구이다. 소속 기관만 위탁이 아닌 진짜 본사, 공단 소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인데 우리의 입장과 요구는 계속 무시되고 있었다.

정규직들이 우리의 처우개선에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해 노조를 설립하고 직접 이 문제에 나서야겠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화장실에 갈 여유가 없어 방광염을 달고 사는 직원들, 물도 마시지 않고 인센티브를 위해 밥도 굶는 사람, 아이가 아파도 연차를 못 쓰는 엄마,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아파도 병원에 못 가며 민원인의 폭언도 조용히 들어야만 하는 우리에게 노동조합은 너무 절실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들을 찾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1,600명 중 1,000명의 직원이 노조 가입원서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활동가의 말이 이렇게 빠르게 노조가 설립되는 곳은 드물다고 했다. 그해 12월, 고객센터 직원의 60%가 가입하여 노조 창립총회를 하게 됐다.

늦게 입사하신 분들은 지금의 근무 환경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이제야 당연하게 내가 원할 때 연차를 쓰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초 단위로 관리를 당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다니는 사업장을 그분들은 상상이나 해봤을까? 공단은 조합원들에게만 혜택을 주면 비조합원들이 모두 노조에 가입할까 봐 비조합원들도 노조의 투쟁 결과인 모든 혜택을 그대로 다 받게 했다. 싸우는 사람이 있기에 직원 모두의 근무 여건이 나아졌다.

노조 설립 후 부지회장을 하는 나에게 올해는 지회장을 맡아달라고 조합원들이 요청했다. 노조 활동을 하면서도 업무평가는 최상위 등급이었는데 지회장을 맡은 후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최저임금을 받아서는 내 가정을 꾸릴 자신이 없었다. 큰 애가 올해 대학교 2학년인데 학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학교에 진학했다. 타지로 갔기 때문에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와 용돈으로 돈이 많이 든다. 더 벌어도 부족한 상황이라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거절했지만, 언니가 지회장을 하면 본인들도 열심히 하겠다며 포기하지 않고 설득했다. 그렇게 주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지회장이 되었다. 남편에게는 소속 기관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버티자고 했다. 노조를 만들긴 했으나 상근활동가를 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지부장, 사무국장 포함 지금 간부들 모두 타임오프를 이용해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 안 되면 자기 연차 쓰고 그것도 안 되면 지명파업을 한다. 그렇게 노조 활동가들은 계속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며 노조 일을 한다. 지금은 목표한 바가 있으니 이렇게라도 할 수 밖에 없다.

본사로 향하는 파업

건강보험공단 본사가 있는 원주에 모여 작년 1년 내내 파업을 이어갔다. 공단이 소속 기관 전환을 안 하고 있으니 달리 방법이 없었다. 2021년 2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76일 파업했다. 3번에 나눠 진행했는데 2월 파업 후 복귀해 일하다가 6월과 7월 그렇게 현장과 사무실에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하면서 3번의 파업을 했다. 작년 1년 동안의 파업 결과로 정규직 전환이 아닌, 건강보험공단 산하 소속 기관을 하나 만들어 그 안에 넣는 걸로 정리됐다. 청소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이미 업무 지원직으로 편성되었기에 우리도 따로 업무 지원직을 만들어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업무 지원직과 정규직은 어차피 직렬이 달라 절대로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공단의 정규직 직원들, 특히 MZ세대 정규직들의 반대가 심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른 공단 직원들은 이미 다 소속 기관 전환이 되었고 우리만 이루지 못하여 5월부터는 소속 기관 전환이라도 쟁취하기 위한 파업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 본사가 있는 원주로 가는 원정 투쟁을 다녔다. 찜통 같은 한여름에도 영하 12도인 겨울에도 천막만 쳐놓은 상태에서 1박을 하며 투쟁을 이어갔는데, 그때도 공단 정규직들의 우리를 향한 하대는 어마어마했다. 어느 날은 공단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막말을,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막말을 퍼부었다. 말이 거칠고 심한 탓에 처음에는 용역을 부른 줄 알았는데 모두 본사 정규직 직원들이었다.

한번은 경찰들을 동원해서 본사 주변으로 펜스를 치고 못 들어

가게 막았다. 1시간 정도의 노조 결의대회를 함께 하려고 원주까지 갔는데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다. 도로 쪽은 경찰이 막고 있고 반대편 쪽이 풀숲이어서 그쪽을 타고 올라갔다. 그 너머 공단 직원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직원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그렇게 풀숲으로 올라가는 우리를 줌비에 빗대어 비하하는 사진과 영상을 보니 비참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덕분에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일부분은 언론플레이가 심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충격도 많이 받았다. 그래도 결의대회에 참가하겠다고 서로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위에서 끌어주고 밑에서 밀어주면서 수십 명이 올라갔다. 시민단체들과 다른 노조에서 연대해 주시기도 했다. 우리가 20~30명이 본사 로비로 들어가니 처음 들어갈 때는 아무 말 없다가, 24시간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우리를 계속 감시했다. 누군가 발언을 하면서 이름을 말하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당한 직원은 소환 조사받고 벌금을 내야 했다.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서 결국 2021년 10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 고객센터 직원들도 본사의 소속 기관으로 전환하라고 승인했다. 하지만 아직도 건강보험공단은 준비가 안 되었다고 일을 미루고 있다.

지금도 여러 직군 속에 어떤 이는 비정규직이고 계약직이며, 그로 인한 불편부당함을 직군 간의 차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IMF를 겪은 경쟁 사회에서 비롯한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도 하지만 그것을 악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도 많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그늘이며 앞서 말했듯 그 그늘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존중받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 노조는 그것을 대변해줄 최소한의 창구이자 우리의 목소리이다. 근래에 대통령은 노조를 부정한 세력으로 폄하하고 언론은

그의 말을 인용하며 노조를 폐단처럼 규정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노조에 문제가 있으면 계도와 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을 믿고 조율해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갈등에 놓인 업주 측과 노조의 중재는커녕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로 노조를 악마화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모습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마련하고 복지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가 사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데 말이다.